

工業化와 企業家活動

—英國과 獨逸의 企業家活動에 관한 比較史的 考察—

金 宗 炫*

〈目 次〉

- I. 序 言
- II. 産業革命期の 企業家活動
- III. 工業化深化期の 企業家活動
- IV. 結 語

I. 序 言

工業化는 역사적으로는 18世紀 중엽의 영국의 産業革命에서 시작되어 19세기에 들어 歐美諸國에 파급되고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外延的으로 확산되고 또한 內延的으로 深化되면서 전개되고 있다. 로스토우가 假定한 離陸期를 各國의 工業化의 始期로 본다면 18세기 말엽의 英國을 선두로 해서 19세기의 30年代~70年代에는 프랑스, 벨기에, 미국 및 독일이, 1870年代~1914년에는 日本, 러시아, 캐나다가, 1930年代에는 아르헨티나 및 터키가 그리고 1950年代에 들어서는 인도와 중국이 각각 工業化過程에 들어갔으며⁽¹⁾ 그 후에도 韓國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새로이 工業化過程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工業化의 外延的 擴散과 함께 先進工業諸國에서는 1870年代 이후 工業化는 內延的으로 더욱 深化되고 있다.

그러나 世界的인 관점에서 볼 때에 연속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工業化過程도 國家的인 관점에서 類型的인 차이를 나타내면서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先行한 역사과정에서 工業化를 위한 社會經濟的 諸條件이 성숙하고 그에 대응한 民間企業家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수행된 英國의 産業革命이 自生的인 것이었는데 대해서 그러한 先行諸條件을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本論文은 1981學年度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의 支援을 받아 作成된 것임.

(1)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1960, p. 38.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영국 産業革命의 충격을 받고 工業化를 수행한 19세기의 後進諸國의 경우 그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誘導的 性格을 가진 것이었다. 거센크론은 先進國의 工業化에 대비해서 볼 때 後進國에 있어서는 後進性이 크면 클수록 다음과 같은 일반적 諸特徵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그것은 첫째로 工業化의 속도가 급속하여 大疾走(big spurt)의 양상을 띠는 것, 둘째로 輕工業部門에 대한 重工業部門의 比重이 일찍 커진다는 것, 세째로 일찍부터 企業規模가 커지고 獨占이 형성된다는 것, 네째로 工業化가 自生的이 아니라 民間企業家, 銀行, 國家 등 일정한 제도 또는 經濟主體에 의해서 誘導되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째로 工業化의 理念으로 단순한 合理主義 또는 經濟主義가 아니라 民族主義 등 강력한 理念的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²⁾

先進國과 後進國 또는 後進性의 정도에 따른 工業化의 類型的 차이는 國家와 時代에 따른 社會經濟的 諸條件과 그에 대한 經濟主體의 대응형태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工業化의 전개가 두말할 것도 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經濟的 諸條件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準自動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經濟主體의 活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의 經濟主體로서 중요한 것은 企業家이다. 따라서 工業化의 諸類型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社會經濟的 諸條件과 그에 대응하는 經濟主體 즉 企業家의 活動을 고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企業家活動이 工業化 또는 經濟成長에서 독립변수나 아니면 市場機會, 生産諸要素의 이용 가능성, 利潤機會, 발명 등 경제적 환경에 準自動的으로 반응하는 종속변수나라고 하는 문제 즉 企業家活動의 評價에 대해서는 많은 學者들에 의해서 論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슈페터(J.A. Schumpeter), 콜(Arthur H. Cole) 및 코크란(T.C. Cochran) 등은 企業家活動이 經濟發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는 데 대해서 하바쿠크(H.J. Habakkuk), 필리스 딘(Phyllis Deane) 및 노드(Douglas C. North) 등은 明示的 또는 暗示的으로 企業家活動을 經濟的 環境의 變化에 受動的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킬비(Peter Kilby)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經濟史家들은 企業家活動에 대한 相反되는 극단한 評價를 피하고 經濟的·社會的 및 歷史的 決定要素를 포괄하는 보다 現實的이고 복합적인 因果關係 속에서 經濟史를 인식하려 하고 있다.⁽³⁾ 코카(Jürgen Kocho)는 비록 企業家의 供

(2) A.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Cambridge., Mass., 1966; 中川敬一郎, 「後進國の工業化過程における企業者活動—ガーシェンクロン・モデルを中心にして」, 『經濟學論集』, 第28卷 第3號(1962. 11).

(3) Peter Kilby, "Hunting the Heffalump," in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ed. by Peter Kilby, N.Y., 1971, p. 3.

給이 매우 彈力的이고 企業家活動이 需要側面에서의 어떠한 환경적 要素의 출현에 준자 동적으로 반응한다 하더라도 그들 環境적 要素가 경제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경제 변동이 왜 그와 같이 준자동적으로 일어났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企業家活動에 관한 研究가 經濟成長 및 發展이라는 문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서 경제변동은 社會變動 및 歷史變動 일반과 같이 環境적 要素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人間의 主體的 대응 없이 그들 諸要素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⁴⁾ 이러한 관점에서 企業家活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企業家活動이 社會經濟的 環境에 主體的·個別的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恣意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정한 社會經濟的 및 歷史的·文化的 條件을 전제로 하고 그에 規定되면서 수행되는 人間 行爲인만큼 그것이 실제로는 個別的으로 수행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共通性을 갖고 있다. 「經濟人」이라고 하는 假定 위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人間行動으로서의 企業家 活動이 國家에 따라서 그리고 時代에 따라서 性格上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특정한 국가와 時代의 諸條件에 의해서 일정한 규정을 받으면서 主體的으로 수행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객관적 제조건과 人間의 主體的 대응의 상관계가 國家와 時代에 있어서의 工業化 또는 經濟成長에 일정한 특징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企業家 活動에 관한 연구는 諸國家와 諸時代의 工業化 또는 經濟發展에서 나타나는 諸特徵을 비교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有用한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稿는 英國과 獨逸의 工業化過程에서 나타난 企業家活動의 특징을 비교 고찰한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英國은 최초의 產業革命을 수행하여 工業化的 선두에 선 나라이며 독일은 後進的 狀態에서 뒤늦게 시작하여 급속한 工業化를 수행한 나라이다. 英國의 경우 先行한 時期에 있어서의 社會經濟的 諸條件의 성숙을 歷史的 前提로 해서 自生的인 과정에서 產業革命을 수행하고 19世紀 中葉에는 「世界의 工場」으로서의 經濟的 地位를 갖 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英國의 工業化過程은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經濟成長도 지체되었다. 이에 대해서 독일은 英國이 產業革命을 완성한 단계에서 뒤늦게 產業革命을 시작하였지만 그 후 급속한 工業化를 수행하여 20世紀初에는 戰略的인 諸工業部門에서는 오히려 英國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工業化過程을 전제로 해서 本稿에서는 英國과 독일의 產業革命期와 1870년대에서 제 1 차대전 에 이르는 工業化的 深化期에 있어서의 企業家活動이 고찰된다.

(4) Jürgen Kocka, "Entrepreneurs and Managers in German Industrialization," i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VII (*The Industrial Economies: Capital, Labour, and Enterprise*), Part 1, ed. by Peter Mathias and M.M. Postan, Cambridge, 1978, pp.494-5.

II. 産業革命期の 企業家活動

1. 企業家の 起源

産業革命 초기의 企業家は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階層과 地方에서 발생하였다. 英國의 경우 社會的 및 地理的 可動性이 증대하고 企業家活動을 통한 社會的 上昇의 可能性이 존재하는 속에서 企業家は 여러 地方에서 그리고 貴族, 商人, 製造業者, 匠人, 牧師, 醫師, 教師 및 기타 모든 階層에서 배출되었다.⁽⁵⁾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 조건에서는 産業革命期 英國企業家の 주요한 出身階層은 商業的 연고를 가진 「中產下層」이었다.⁽⁶⁾ 先行한 時期에 있어서의 先貸制 및 工場制手工業의 광범한 展開過程에서 中產的 生産者層이 成長하고 있었으며 그들 속에서 産業革命 초기의 産業企業家の 대부분이 배출되었던 것이다.

독일에서도 産業革命 초기의 企業家は 일반적으로 모든 階層에서 배출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독일 産業企業家の 대부분은 工業 및 商業部門에서 배출되었으며 특히 纖維工業部門에서는 貿易商人 및 先貸商人 등 商人層에서 배출되었다. 國內外의 大量消費市場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纖維工業에서는 手工業者에 대해서 先貸商人과 貿易業者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증대하는 資本需要 속에서 企業家の 地位로 成長한 것은 手工業者보다도 이들 商人階層이었다. 商人階層은 化學工業, 金屬工業, 鑛業, 製鐵業 등에서도 企業家の 중요한 源泉이 되고 있다. 그 경우 商人들은 그들이 본래 수행하던 商業活動과 관련된 生産部門에 進出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商業部門에서의 그들의 資本, 企業家로서의 進取性, 組織能力과 함께 특정한 실제적인 지식까지도 生産部門으로 이전시켰다.⁽⁷⁾ 한편 産業革命 초기의 독일 企業家を 배출한 階層으로는 匠人 및 技術者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中小規模의 企業에서는 匠人 출신 企業家が 支配的이었다. 특히 엔지니어링部門과 소규모 金屬細工部門에서는 匠人階層 출신이 많았다. 그것은 이 部門에는 특수한 技術이 필요하였고 초기에는 주로 注文生産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위험이 큰 새로운 部門이므로 商人이 이 部門에의 資本投下를 주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1831~1850년에 엔지니어링工場을 건설한 前職을 식별할 수 있는 72名の 독일 企業家 중에서 匠人 출신은 33명이었으며, 이에 대해서 어떤 종류든 기술 및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이 17명, 그리고 商人 출신이 11명

(5) Peter Mathias, *The First Industrial Nation: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1700~1914*, London, 1969, p.156.

(6) Harold Perkin, *The Origins of Modern English Society 1780~1880*, London, 1969, p.82.

(7) Kocka, *op. cit.*, pp.517-21.

이었다. 企業家가 된 技術者로서는 技術學校 또는 專門學校 출신과 工場에서 職長 또는 스태프 직책에 있으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資本을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보르지히(August Borsig)는 木工으로서의 修練을 받은 후 國立베를린工業專門學校(Berlin Gewerbe-Institut)를 거쳐 베를린의 에겔스(F.A. Egells) 엔지니어링工場에서 13年間 職長 및 支配人으로 있다가 1837년에 50名の 勞動者를 고용한 엔지니어링工場을 건설하였고 그것은 후에 大機關車會社로 발전하였다. 당시에는 工場主로서 성공하는 데에는 技術學校를 나오는 것보다도 큰 工場에서 技術的 知식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였지만 産業革命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技術教育을 받은 企業家의 수는 증가하였다. 당시 고등기술교육의 중심이었던 베를린工業專門學校는 1850년까지 1,000名の 졸업자를 배출하였다.⁽⁸⁾ 後進의 상태에서 工業化를 수행해야 하였던 독일에서는 技術教育은 영국보다 앞섰다.

한편 宗派의으로 보면 産業革命期의 企業家는 다양한 宗派에서 나오고 있지만 특히 프로테스탄트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영국에서는 非國教徒 프로테스탄트가 큰 比率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독일에서도 프로테스탄트가 企業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세기의 독일의 저명한 企業家 370名の 宗教的 背景을 보면 74%가 프로테스탄트, 16%가 로마 카톨릭, 7%가 유대교로 나타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 企業家의 높은 比率은 카톨릭이 우세한 지역과 프로테스탄트가 우세한 지역에서 다 같이 나타나고 있다.⁽⁹⁾

프로테스탄트 企業家가 우세하다는 것은 막스 베버의 假說을 뒷받침하는 것같이 보인다. 막스 베버는 禁慾的 프로테스탄트의 倫理가 近代的 職業倫理, 成就指向性, 禁慾的 生活態度, 貯蓄 및 計劃性의 전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資本主義精神의 전개와 企業家階級의 발생에 유리한 理念的 條件을 조성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¹⁰⁾ 한편 프로테스탄트가 열세한 곳에서는 企業家의 성공만이 그들이 社會的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길이었다. 英國에서는 非國教徒 프로테스탄트는 官職과 軍의 요직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독일에서도 카톨릭이 우세한 곳에서는 富, 威信, 權力에 이르는 傳統的인 길은 프로테스탄트에게는 닫혀 있었다. 이러한 속에서 그들의 能力은 商工業活動에서 발휘될 수 밖에 없었다. 企業經營에 위험도가 컸고 不確實性이 컸던 당시에 信仰을 통한 그들의 강한 유대는 그들 상호 간의 資本調達과 企業經營에 유리하였으며 勤勉, 誠實 및 正直을 강조하고 사치와 태만을 악덕으로 보는 그들의 생활태도는 그들의 信用을 높히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에슈톤은 英國의 경우 「非國教

(8) Kocka, *op. cit.*, p. 525.

(9) *Ibid.*, p. 513.

(10) M.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Bd. XX und XXI, 1904~5.

가가 대체적으로 中産階級 중의 비교적 教育이 높은 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¹¹⁾이므로 그들로부터 企業家가 다수 배출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하고 그 경우 새로운 實業教育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非國教徒아카데미(Dissenting Academy)를 들고 있다.⁽¹²⁾

産業革命期の 企業家가 다양한 起源를 가지고 다수 발생할 수 있게 된 데에는 工業化初期의 유리한 經濟的 環境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社會的 條件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英國에서는 일찍부터 國內市場이 통합되고 封建的 諸制度가 소멸됨으로써 企業家의 地理的 및 社會的 可動性이 높아지고 있었다. 英國의 貴族階級은 완고한 世襲적 계급이 아니라 富를 축적한 商工業者에게는 그의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한편 貴族의 次男 이하는 적극적으로 實業界에 진출하였다. 에슈톤은 貴族과 平民間의 階級的 區分이 엄격했던 프랑스와 대비하면서 「英國에서는 貴族은 鄉紳(esquire)과 합동하고 鄉紳은 自由保有農 및 農業經營者와 합동하고 있었다. 所得을 地代에서 얻는 階層과 商工業의 이익에서 생활하는 階級 간에는 명확한 구별은 없었다.」⁽¹³⁾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英國에서는 企業家로서 성공한 사람은 貴族의 칭호를 받고 社會的 承認을 얻을 수가 있었다.

독일에서도 19세기에 들어서 普魯士改革이라든가 關稅同盟 등 일련의 諸改革이 이루어짐으로써 經濟活動의 自由가 증대하여 民間企業家活動이 전개될 수 있는 條件이 조성되고 地理的 및 社會的 可動性도 높아지고 있었다. 農民, 勞動者 등 下層은 技術, 動機, 情報 및 資金의 부족으로 企業家가 될 수는 없었고 上層 및 中上層은 그들의 身分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實業界에 들어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企業家活動에 대한 독일 上流階級の 意識은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下層 출신이 企業家로서 성공하여 上層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 地域的 變差는 있었지만 商工業에서 성공한 실업가가 貴族의 칭호를 받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다. 貴族階級으로 들어간 그들은 종래의 實業活動을 떠나 地主 및 地代取得者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啓蒙君主의 重商主義的 經濟政策과 19세기의 國家에 의한 工業化政策이 촉구되는 속에서 實業家에 주어진 높은 評價와 地位는 貴族階級으로 하여금 實業活動을 높히 評價하고 受容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農業과 관련된 있는 鑛業, 製鐵, 製瓦 등 諸部門이라든가 國家指定과 관련된 있는 部門에서는 貴族도 企業家로 活動하였다. 독일에서도 教養 있는 中産層은 특히 教養 없는 中小商工業者를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後進狀態에서 급속한 工業化를 수행해야 하였던 독일에서는 19세

(11) T.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rev. ed., London, 1962, p.19.

(12) *Ibid.*, p.20.

(13) *Ibid.*, pp.20-1.

紀 중엽 이후 自然科學과 함께 技術의 進歩가 이루어지고 大學과 產業이 연계되어 企業家活動에 「知的 價値」가 부여되게 되고 「祖國을 위한 產業」이라는 民族主義的 工業化理念이 강조되면서 企業經營에 대한 評價도 높아지고 企業家의 社會的 地位도 높아지게 되었다.⁽¹⁴⁾ 이와 같은 社會的 環境 속에서 여러 지역과 階層에서 많은 企業家가 배출되고 그들의 活動이 촉진되었던 것이다.

2. 企業家의 動機와 資質

(1) 動 機

産業革命期の 企業家의 動機는 그들의 起源이 무엇이든 기본적으로 利潤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企業家의 起源이 貧困한 匠人인 경우 우선은 貧困한 經濟事情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 동기였겠지만⁽¹⁵⁾ 그것도 결국은 利潤追求에 귀결되는 것이었다. 콜먼은 企業家活動의 動機가 단순히 利潤의 추구만이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安定, 威信, 權力, 公的 奉仕 등을 추구하는 心理的 動機의 어느 쪽인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¹⁶⁾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콜먼(D.C. Coleman)도 英國 企業家의 궁극적 목표는 威信, 權力, 地位 등의 획득 즉 社會的 上昇이었으며 富는 그것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⁷⁾ 그러나 利潤의 추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였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利潤의 追求를 통한 富의 축적은 궁극적으로 社會的 地位와 政治的 權力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利潤追求를 위한 企業家活動은 19세기의 時代思想으로서의 功利主義, 經濟的 個人主義 및 自由主義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사상적인 뒷받침을 받았다. 로크(J. Locke), 스미드(A. Smith), 벤담(J. Bentham), 맬더스(T. Malthus), 스마일즈(S. Smiles), 스펜서(H. Spencer) 등의 사상은 종합되어 經濟的 個人主義哲學이 되어 自立心과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物質的 進歩의 신앙을 낳았다. 그 속에서 利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合理的으로 수행되는 個別企業家의 活動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조화되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全體의 善」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독일에서는 메비센(Mevissen), 캄프하우젠(Camphausen), 한제만(Hanselman), 지멘스(Siemens), 하코트(Harkort), 리스트(List)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企業家活動을 個人的 成功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國家와 文明을 위한 使命의 일부로 간주하였다.⁽¹⁸⁾ 企業家活動은 國家的 見地에서도 장려되었던 것이다.

(14) Kocka, *op. cit.*, pp.514-5.

(15) *Ibid.*, 528.

(16) Arthur H. Cole, *Business Enterprise in Its Social Setting*, Cambridge, Mass., 1959, p.16.

(17) D.C. Coleman, "Gentlemen and Players,"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XXVI No. 1, February 1973, pp.95-6.

(18) Kocka, *op. cit.*, p.529.

그 경우 利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막스 베버가 말하는 「賤民資本主義」精神의 기반에서가 아니라 倫理的 價値 또는 「市民道德」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일에 대한 高度의 倫理的·宗教的 價値賦與가 經濟的 成功을 適法的인 것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¹⁹⁾ 그럼으로써 産業革命期의 企業家의 성공은 家族의 經濟的 기반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正直, 才能, 眞實, 勤勉, 節約 등 諸德目과 밀접하게 結付되어 있던 개인의 成就에 대한 긍지 즉 개인의 명예이기도 하였다. 당시의 칼빈派 企業家로서는 성공은 神에 의한 구제의 증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利潤의 실현과 企業擴張을 위한 企業家의 끊임 없는 노력은 그것이 반드시 倫理的 및 宗教的으로 正當化된 결과였던 것은 아니며 兩者의 관계도 후에는 약화되었다. 독일에서는 産業革命이 끝날 무렵인 1870年代에는 勞動倫理와는 관계 없이 利潤追求가 小市民에게까지 침투하고 있었다.⁽²⁰⁾ 成就, 成功, 企業擴張을 위한 노력은 그것이 倫理的·宗教的 意義를 상실하고 家族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한다는 목표가 소멸된 후에도 대다수의 企業家에 의해서 추구되었다.

(2) 資 質

企業家의 動機는 그의 資質에 따라 실현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 産業革命期의 企業家의 資質은 어떠한가?

産業革命 초기의 英國 企業家は 革新을 하고 危險負擔을 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工業指揮官」(Captain of Industry)을 전형으로 하는 이 시기의 企業家들은 자신의 책임으로 스스로 資金을 조달하여 工場을 설립하고 技術과 組織面에서 革新的 기능을 하고 勞動者를 管理하고 不確實한 속에서 위험을 분담하면서 企業經營을 수행하였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初期의 企業家 모두가 반드시 이와 같은 機能을 수행하고 그러한 資質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革新」이라는 것이 스펀터의인 의미에서의 「창조적 혁신」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歷史的 現實로서는 매우 드문 것이며, 기존의 것을 地域的, 產業的으로 전과한다는 레들리히(Redlich)의 의미에서의 「派生的 革新」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企業家가 革新的이었지만 대부분의 기업가는 그들을 모방하였고 그들은 革新보다도 훌륭한 經營으로 성공하였다.⁽²¹⁾ 한편 個人企業 또는 파트너십이라는 형태의 企業의

(19) 퍼킨은 빅토리아朝 中期에 이루어진 企業家의 理想의 승리의 하나로서 道德革命을 들고 「企業家は 직업에 의해서 有德하였고, 일을 통해서 世俗의 成功과 神의 축복을 추구하는 淸教徒巡禮者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Harold Perkin, *op. cit.*, pp. 273-7.

(20) Kocka, *op. cit.*, p. 530.

(21) Peter L. Payne, "Industri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in Great Britain," *The*

所有者이며 經營者인 초기의 企業家は 자신의 책임 하에 資本을 조달하고 企業經營을 해야 하였고 그것은 그만큼 危險負擔을 하는 것이었다. 産業革命 초기의 企業經營環境은 中世의 遠隔地商業이라든가 重商主義時代에 있어서의 外國貿易과 같은 정도로 위험이 큰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産業革命을 거친 工業化社會의 그 것보다는 위험이 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의 企業家は 다수의 勞動者를 고용하고 工場에 집중하여 管理해야 하였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管理能力·리더쉽이 요구되었다.

産業革命期の 英國의 企業家は 일반적으로 용기와 모험심, 革新性, 組織能力, 商業的機會의 捕捉能力 등의 諸資質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사실 영국 産業革命期の 企業家活動을 둘러싼 社會的 및 經濟的 環境은 유리한 것이기는 하였지만⁽²²⁾ 그러한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企業家活動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만큼 資質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英國의 産業革命이 歷史上 최초로 것이었던만큼 企業家活動도 經驗的으로 수행해야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資質은 더욱 요구되었다. 産業革命期 英國의 企業家は 이와 같은 資質을 본래의 才能과 經驗을 통해서 갖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産業革命 초기의 독일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英國의 企業家에서 본 바와 같은 資質이 요구되었다. 企業形態가 일반적으로 個人企業 또는 파트너쉽이라는 조건 속에서 독일에 있어서도 초기의 企業家は 전형적으로는 「工業指揮官」이었다. 그들은 市場條件에 대응하면서 자신과 친척·친지의 資金으로 個人企業 또는 파트너쉽組織의 기업을 설립하여 개인적 信用을 기반으로 自己金融을 하여 기계를 도입·설치하고 勞動者를 고용·감독하였다. 그들은 企業의 所有者로서 그리고 經營者로서 자기 책임 하에 企業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위험부담을 받아들일려고 하는 용기 또는 冒險心, 效率을 증진시키려는 革新性, 다수의 勞動者를 고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組織能力, 需要條件에 대응할 수 있는 市場機會에 대한 센스 등의 資質이 요구되었다. 초기의 企業家は 본래적으로 이러한 資質을 가지고 企業家活動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뒤늦게 産業革命을 수행해야 하였던 독일의 企業家は 필요한 資質을 본래적으로 갖추고 經驗적으로 企業家活動을 수행할 수만은 없었다. 즉 企業家の 資質은 의식적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先進技術이 도입되고 기업규모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資本이 필요해짐에 따라 株式會社組織의 企業設立이 진전되게 되었다. 株式會社組織의 기업의 설립은 1850年代의 株式會社 설립붐의 時期를 거쳐 1870年代의 第2次 붐에 이르러 크게 진전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VII, Part 1, ed. by Peter Mathias and M.M. Postan, Cambridge, 1978, p.184.

(22) 金宗炫, 『英國産業革命研究』, 1977, pp.125-35 참조.

되었다. 株式會社組織으로 企業이 대규모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株式會社組織이 일찍부터 도입된 광업, 탄광업, 제철업, 엔지니어링 등 諸部門에서는 諸機能의 垂直的 統合이 진전되면서 企業規模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 경우 企業家は 自己金融만으로 企業資金을 조달할 수는 없었고 銀行資本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株式會社組織의 銀行들도 1850年代와 1870年代에 다수 설립되었으며 그들 銀行은 産業企業에 대해서 단기적인 商業金融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産業金融까지 하였다. 그와 함께 銀行은 産業企業의 經營에 介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工業指揮官」이 한 몸에 통합해서 경험적으로 수행하던 諸機能은 分化·專門化되고 습득된 專門知識을 기초로 해서 수행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경제적으로 후진적 상태에서 독일의 企業家は 英國, 프랑스, 벨기에 등 先進諸國의 産業革命의 충격을 받으면서 先進國에 따라가야 한다는 民族主義의 理念下에 적극적으로 先進技術 및 經營에 관한 知識을 습득하면서 企業家活動을 수행하였으며 그 속에서 독일의 産業革命·工業化는 급속하게 진전되었던 것이다.

독일 産業革命期에 先進技術의 대부분은 英國으로부터 들어왔다. 특히 英國의 경험은 독일의 엔지니어링, 鐵鋼業, 纖維産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先進技術 및 知識은 外國企業家和 技術者の 移住, 外國勞動者の 고용 또는 文獻 등을 통해서도 도입·습득되었지만 그보다도 주로 독일 企業家和 그 자제 또는 幹部社員의 外國旅行을 통해서 도입·습득되었다. 1870년에 이르기까지 라인·베스트팔렌地方의 企業家の 3분의 1은 外國에서 事業을 한 경험이 있거나 研修目的의 外國旅行을 하였다. 실레지엔地方의 많은 貴族들은 貴族社會에서 일반적이었던 「大旅行」(Grand Tour)을 통해서 英國의 방법에 숙달하여 그것을 자기의 地方에서도 모방하려 하였고, 大商人들은 오래부터 관례가 된 外國人事業同僚와의 研修를 위한 長期의 外國滞在와 빈번한 事業上의 外國旅行을 통해서 習得한 知識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工業으로 진출하였고 技術修習工들은 外國旅行을 통해서 先進技術을 습득하였다. 18세기 말부터 研修 및 情報取得을 위한 官吏와 工業家の 意圖的인 英國 「技術旅行」은 빈번해지고 중요해졌다.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기계와 도구를 구입해 오는 기회이기도 하였으므로 國家에 의해서 권장되고 금융적으로 지원되었다. 그들은 英國의 對外技術秘密政策이 시행되는 동안⁽²³⁾에는 産業스파이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여행을 통해서 英國技術을 모방하고 개량하려는 자극이 커지게 되었다. 독일의 이러한 모방은 獨逸特許法의 미비에 의해서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英國技術의 도입에 의해서 독일의 技術水準은 급속히 향상되었다. 한편 部門에 따라서는 독일의 市場條件과 生産構造條件으로서는 적

(23) 영국에서는 1825년까지 熟練勞動者の 海外移住를 그리고 1842년까지 機械輸出을 금지하였다.

합하지 않은 先進技術이 한꺼번에 도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個別企業水準에서는 잘못된 意思決定일 수도 있었지만 長期的으로는 적극적인 成長要因이 될 수도 있었다.⁽²⁴⁾

새로운 技術과 企業規模의 확대가 요구되는 속에서 企業家的 資質은 국내에서의 技術 및 商業教育을 통해서도 개발되었다. 産業革命 초기의 企業家は 한정된 初中等學校教育, 徒弟修業, 工場實習 등 주로 경험적인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1820年代 이후에는 國家主導下에 商業·技術學校 및 大學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은 徒弟修業이라든가 工場實習을 통한 實務 및 技術訓練을 科學的으로 기초지워진 教育으로 보충하였다. 이들 學校는 獨立企業家보다도 資質 있는 技術職을 많이 教育하였고 그 效果도 1870年代 이후에 크게 나타나게 되었지만 産業革命期에도 企業家和 특히 企業家 2世의 教育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1>⁽²⁵⁾은 1790~1870年の 라인·베스트팔렌地方에서의 400명의 企業家的 教育內容에 관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全體平均으로 볼 때 技術學校 또는 技術大學教育을 받은 企業家的 比率은 아직도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1830年 이후 그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1830年 이후 대부분의 企業家は 技術教育에 더해서 初等學校 이상 水準의 일반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1870年の 企業家は 그 전 世代의 企業家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독일 企業家的 資質은 學校教育을 통해서 향상되었고 그것이 새로운 技術을 도입 하면서 企業과 나아가 經濟를 급속히 成長시키는 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表 1> 라인·베스트팔렌地方에서의 企業家的 教育內容 추이 (단위: %)

	1790~1810	1811~1830	1831~1850	1851~1870	1790~1870
一 般 教 育					
初 等 教 育	72.8	58.3	31.4	19.2	43.5
高 等 教 育	27.2	41.7	68.6	80.8	56.5
專 門 教 育					
經驗的·實地教育	96.3	95.8	67.5	47.7	74.0
商 業·技術學校	0.9	2.8	16.8	14.6	9.3
高 等 (大學) 教育	2.8	1.4	15.7	37.7	16.7
總 數	109	72	89	130	400

3. 企業家活動

(1) 資本調達

産業革命期の 英國의 企業家は 工場을 건설하고 기계를 설치하고 원료를 구입하고 勞動

(24) Kocka, *op. cit.*, pp. 531-3.

(25) *Ibid.*, p. 534.

者를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資本을 어떻게 조달하였는가? 당시의 英國의 1人當 國民所得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프랑스보다도 높았고 오늘날의 低開發國 일반의 그것보다도 높았다. 또한 국민의 貯蓄水準도 높았다.⁽²⁶⁾ 資金의 이동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이 곳에서 富가 증대하고 저 곳에서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資金은 모든 방향으로 흘러갔다.」⁽²⁷⁾ 따라서 企業家들은 필요한 資本을 地主, 商人 및 製造業者 등 모든 階層으로부터 조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時期의 資本移動의 자유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産業革命 초기의 投資는 局地的이고 宗派的인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性格은 어느 정도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社會間接資本과 鑛山企業에서는 地主 및 商人資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株式會社組織으로 넓은 범위에서 資本이 調達되었다. 그러나 工業企業은 일반적으로 家族企業 또는 파트너십으로 個人企業的 性格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産業企業家の 資本調達도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産業革命期の 英國의 企業家は 필요한 資本을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貯蓄이라든가 친척·친지로부터 借入해서 조달하고 企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현한 利潤을 끊임없이 再投資하면서 企業을 확장하였다. 「産業資本은 그 자신이 가장 중요한 源泉이었다.」⁽²⁸⁾ 한편 企業家的 資質을 가지면서도 스스로의 資本이 없을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資本을 조달할 수가 있었다. 파트너십은 企業家가 자신의 企業規模를 확장시키는 데에도 일반적으로 이용된 방법이었다. 이렇게 해서 英國産業革命期の 企業家の 전형적인 資本調達方式은 스스로의 資金 또는 파트너십組織을 통해서 資本을 도달하여 企業을 설립하고 無限責任을 가지고 企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현한 利潤을 再投資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資本調達方式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조건이 있었다.⁽²⁹⁾ 첫째는 制度的 條件이다. 즉 1720年の 泡沫會社法(Bubble Act)에 의해서 工業部門에서는 株式會社組織의 企業設立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어 企業은 일반적으로 個人企業 또는 파트너십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끊임 없이 그리고 급속히 이루어지는 技術革新過程에서 경험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신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에는 株式會社組織보다 個人企業이 유리한 면도 있었으며 또한 近代的 企業의 形成期에 無限責任을 진다는 것은 誠實性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資金調達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적극적인 측면도 있었다. 둘째는 技術的 條件이다. 즉 産業革命初期의 工業技術水準은 그 대부분이 아직도 「半手工業的 段階」

(26) Phyllis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Cambridge, 1965, pp. 6-7.

(27) Ashton, *op. cit.*, p. 95.

(28) *Ibid.*, p. 97.

(29) 金宗炫, 前掲書, pp. 140-4 참조.

에 있었으며 새로운 技術革新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처음부터 거액의 固定資本과 企業의 대규모화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産業革命 초기의 企業資本은 그 대부분이 원료스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固定資本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産業革命期の 企業家は 공장건설이라든가 기계설치 등 長期 固定資本은 주로 스스로의 貯蓄과 친척·친지로부터의 借入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조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企業家は 원료구입, 재고 그리고 임금지불을 위해서 보다 많은 短期運營資本을 필요로 하였다. 그 경우 短期運營資本은 銀行을 통해서 조달되었다. 産業革命期の 英國에서는 다수의 地方銀行이 설립되어 있었다. 産業企業家は 地方銀行과 직접, 간접으로 연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후자는 전자의 信用과 資質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産業企業家は 地方銀行으로부터 편리하게 融資를 받을 수가 있었다. 企業家が 地方銀行으로부터 받은 融資는 長期固定資本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短期運營資本이었다. 企業家の 短期運營資本의 조달에서 地方銀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地方銀行은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조직이었고 銀行券을 발행하였다. 地方銀行은 大商人銀行家が 운영하는 런던의 個人銀行을 去來銀行으로 해서 런던과의 金融去來를 하였고 런던의 個人銀行은 貸付機關으로서 「最後에 의지할 수 있는 銀行」으로서의 잉글랜드銀行과 거래관계를 가짐으로써 産業革命期の 英國의 金融組織은 全國的인 거래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銀行組織을 통해서 遊休資金은 그것을 필요하는 地方과 企業으로 이동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³⁰⁾

독일에서도 産業革命初期의 企業家の 資本調達方式은 앞에서 본 영국에서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즉 초기의 企業家は 스스로의 저축과 친척·친지로부터의 借入으로 또는 파트너십으로 企業을 조직하여 실현한 利潤을 再投資하면서 企業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독일 企業家は 資本調達에 많은 곤란을 경험하였다. 그것은 종래 생각되어 왔던 것같이 可用貯蓄의 절대부족이라는 의미에서의 資本不足 때문인 것은 아니다. 國債 및 鐵道 등을 위한 資金調達可能性으로 보아 부족한 것은 貯蓄資金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産業資本으로 전환하려는 性向이었다. 貯蓄資金이 産業資本으로 원활하게 전환되지 못한 데에는 工業部門에서의 市場機會 및 利潤機會가 적거나 不確實하였다는 것, 貯蓄資金이 反工業集團 특히 大土地所有者에 의해서 所有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慎重, 偏見, 기타 非經濟的 障害가 있었다는 것 등이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³¹⁾ 어떻든 이러한 배경에서 貯蓄資金

(30) 金宗炫, 前掲書, pp.154-161 참조.

(31) Kocka, *op.cit.*, p.536.

소유자는 市場이라든가 생산방법에 대한 지식에 기초를 두어서가 아니라 家族的 紐帶와 개인적 신뢰에 기초를 두고 企業家에게 資金을 제공하였다. 초기의 産業金融에서 中産層家族의 긴밀한 유대와 단결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1830年 이후에는 國家의 보조금이라든가 前貸金支給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1850年代까지는 大土地所有者도 工業投資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工業資本으로 動員될 수 있는 資金源泉으로서의 商業資本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 경우도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였다. 즉 商人이 직접 企業家가 된다는가, 친분이 있고 신용있는 技術者 또는 工業企業家와 파트너십을 조직한다는가 함으로써 商業資本은 工業資本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株式會社組織의 銀行이 나타나는 1850年代 이전에도 企業家는 長期銀行信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地方의 個人銀行家로부터의 借入이었다. 그러나 地方銀行家들의 貸付도 한정된 범위에서 엄선해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地方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地方의 個人銀行家로부터의 借入에 있어서도 개인적 신용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의 企業家가 資金不足問題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생활에서의 신중한 人的 關係의 유지였다. 그들은 私의 消費支出를 절감함으로써 自己金融比率을 높이고 먼 친척 및 주의 깊게 마련된 婚姻關係를 포함하여 밀접한 친척관계를 유지하고 健實하고 正直한 인상을 주도록 私生活를 영위할 필요가 있었다. 産業革命期 라인란트에서는 企業家가 有德한 私·家族生活을 영위한다는 것은 合理的인 經營政策의 하나였다.⁽³²⁾

독일 企業家는 1850年 이전부터 株式會社組織을 통한 資本調達을 하고 있었다. 鐵道部門에서는 1830年代 중엽부터 株式을 통해서 資本調達을 하였고 炭鑛이라든가 製鐵部門에서도 株式會社組織을 통한 資本調達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部門에서는 필요자본규모는 개인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정도로 큰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株式을 통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工業部門에서의 株式會社組織을 통한 資本調達은 1850年 이전에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음에 불과하였다. 會社法의 미비 특히 許可制度下에서 株式會社設立은 부진하였다. 政府官僚는 工業部門에의 投資의 急增이 大地主의 이해관계를 손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自由主義의 思考로 株式會社를 自由競爭이 이루어질 수 없는 특수한 경우의 獨占의·예외적 조직으로 봄으로써 工業部門에서의 株式會社設立許可를 억제하였다. 또한 株式會社組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企業資本을 조달하고 책임을 지는 많은 企業家도 留保의 태도를 취하였고 대중도 일반적으로 불신하였다.

(32) Kocka, *op.cit.*, p. 538.

株式會社組織을 통한 資本調達은 1850年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1850~70년에 프러시아 工業에서 株式投資로 調達된 資本은 1억 6,500만탈레르(taler)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프러시아에서 投資된 株式資本 전체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15~16%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鐵道投資比率이 보다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産業部門에서의 株式資本의 큰 증가는 1870~4년에 이루어졌다. 이 5年間에 프러시아 産業部門의 株式會社에 투자된 資本은 3억 4,300萬탈레르로서 이 期間에 투자된 株式資本 총액의 28%였다. 1850~70년에 産業에 투자된 株式資本의 구성비는 鑛業部門 69%, 섬유 16%, 金屬 및 엔지니어링 8.5%, 食品 5%, 化學 2%였으며 그것은 1870~4년에는 각각 38%, 6.5%, 22.5%, 16%, 4.5%로 되었다.⁽³³⁾ 産業에 투자된 株式資本에서 鑛山部門이 차지하는 높은 比率은 1870年 경에 이르러 低下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金屬 및 엔지니어링과 食品部門이 차지하는 比率은 크게 증대하였다. 株式資本의 증대는 주로 既存企業이 株式會社로 전환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企業의 큰 확장과 新技術의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 속에서 株式이 公賣되어 원래의 株式所有者로부터 분리됨으로써 株式의 匿名去來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870年 이후 産業株式의 一般公賣가 正常的인 것으로 되었다. 會社法の 完善와 政府許可制의 폐지는 株式會社設立에 대한 잔존하는 法的 障害을 제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企業家は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즉각 받지 않는 것이며 그들은 資本調達の 문제를 節約, 가족의 도움, 個人的 信用, 自己金融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2) 勞動者의 管理

産業革命期의 企業家가 해결해야 하였던 새로운 문제는 勞動者의 管理였다. 産業革命은 단순한 技術上的 變革과정만이 아니라 동시에 組織上的 變革, 즉 工場制의 성립과정이기도 하였다. 工場制 하에서 勞動者는 工場에 집중되고 여러 직종으로 분할된 生産工程에서 分業에 의한 協業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勞動力을 조달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産業革命期의 企業家로서는 技術革新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것이었다. 애슈튼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勞動管理方法, 勞動獎勵制度, 그리고 工場規律은 技術上的 發明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産業革命의 일부였던 것이다.⁽³⁴⁾

英國에서는 産業革命期의 工業企業家가 우선 직면한 문제는 質·量的으로 필요한 勞動者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었다. 産業革命 초기의 英國에서 勞動力供給은 전체로서는 크게 증가하여 企業家에게는 유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企業家가 質·

(33) Kocka, *op. cit.*, p. 541.

(34) Ashton, *op. cit.*, p. 123. 英國 産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管理問題에 대해서는 金宗炫, 前揭書, pp. 162-203 참조.

量的으로 필요한 勞動力을 언제나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徒弟法이라든가 貧民救濟法 등 제도적 요인이 勞動力의 이동을 제약하였고 기계에 대한 반감, 비인간적이고規律에 얽매이는 工場勞動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工場勞動者에 대한 멸시 등 心理的 要因이 독립적 숙련노동자의 工場勞動에의 편입을 제약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産業革命 초기의 工業企業家가 필요한 勞動力者를 보충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 된 것은 婦女 및 兒童勞動이었다. 기계가 도입되어 作業이 단순화되고 다수의 비숙련 紡績工을 필요로 한 아크라이트型 紡績工場에서는 兒童勞動이 유효하게 투입될 수 있었다. 企業家는 徒弟契約에 의해서 成年이 될 때까지 확보할 수 있는 온순하고 저렴한 兒童勞動을 대규모로 고용하였다. 초기의 兒童勞動은 상당한 부분이 강제적으로 공장에 편입된 敎區徒弟(parish apprentice)였다. 綿紡績工業 企業家들은 고용한 敎區徒弟에게 열악한 조건에서 勞動을 강요하였다. 강제노동의 대상으로서는 敎區徒弟만이 아니라 自由勞動者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社會的 分化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近代的 프롤레타리아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企業家가 필요한 勞動力을 개별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다. 특히 紡績工場의 경우 婦女 및 兒童 등 비숙련 紡績工을 다수 개별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곤란하였다. 따라서 企業家들은 婦女·兒童을 고용하기 위해서 家長까지 포함한 家族單位의 고용(family employment)을 하고 家長은 숙련노동 또는 屋外勞動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러한 고용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企業家는 노동자가족이 거주할 가옥을 건립하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商店, 敎會, 學校 등 여러 시설을 설립·운영하였다. 즉 工場村(factory village)의 건설이다. 이러한 형태의 고용제도는 企業家에게 많은 社會的 費用을 부담하게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것은 다른 면에서 低賃金과 勞動者에 대한 企業家의 家父長的 支配의 기반이 되었다. 家族單位의 고용이 쇠퇴하고 勞動者의 개별적 고용이 일반화되게 된 것은 勞動者의 社會的 分化가 진전되고 그의 可動性이 증대하여 勞動力의 彈力的인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19세기에 들어서였다.

한편 熟練紡績工을 고용해야 하였던 木紡績工場의 경우에는 企業家는 熟練紡績工만 직접 고용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비숙련보조공은 숙련방직공으로 하여금 고용케 하는 二重雇傭制 또는 下請制를 도입하였다. 二重雇傭制 또는 下請制는 木紡績工場에서만이 아니라 炭鑛, 製鐵, 陶器, 建築 등 여러 部門에서 광범히 이용되었다. 그 경우 熟練勞動者를 필요한 만큼 확보한다는 것은 企業家로서 중요한 일이었다. 특히 土木·기계·제철·陶器 등 諸部門에서는 숙련공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였다. 기계의 도입은 作業을 단순화하여 숙련을 불필요하게 하는 면도 있었지만 한편 그것은 새로운 숙련을 필요로 하였다. 企業家는 熟練勞動者를

정상적으로 고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企業으로부터 부정하게 빼돌리기도 하였다. 企業家は 熟練勞働者를 확보하기 위한 스카우트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그와 함께 企業家は 숙련공을 自社內에서 양성하였다. 徒弟修業을 통하거나 企業內에서 양성된 숙련공이 企業間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전파되었던 것이다.

고용한 勞働者를 관리한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勞働者의 管理體系에는 두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企業家が 勞働者를 고용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勞働者數가 많은 경우에는 下級管理者인 監督을 통해서 관리하는 집중적 管理體系와 다른 하나는 企業家が 熟練工을 고용·관리하고 그 밑의 비숙련·보조공은 熟練工으로 하여금 고용·관리하게 하는 二重的·分散的의 고용·管理體系이다. 企業家は 이러한 管理組織을 통해서 成果給賃金制라든가 價與制 등을 도입하여 勞働意欲을 북돋우면서 勞働管理를 하였다.

그러나 불규칙적이고 방종한 家內工業的 勞働慣行에서 벗어나지 못한 産業革命 초기의 勞働者가 이들 제도만으로 近代的 工場勞働에 적합하게 관리된 것은 아니다. 企業家は 勞働者를 규칙적이고 정확하고 근면하게 勞働하도록 하기 위해서 工場規律 또는 工場法典을 제정하여 勞働者로 하여금 그것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企業家は 勞働者에 대해서 工場規律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적이고 간접적인 방법도 이용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는 體刑, 罰金, 解雇 등 家父長的 權威 또는 「私的 司法權」을 가지고 그것을 강제하였다. 工場規律을 유효하게 강제하기 위해서 勞働者의 결사도 금지되었다. 이렇게 해서 勞働者에게는 열악한 노동환경 하에서의 低賃金에 의한 長時間勞働이 일반적으로 강요되었다.

독일에서도 産業革命期에 勞働管理의 문제는 企業家が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였다. 많은 勞働者를 집중시켜 分業을 통해서 協業을 해야 하는 工場에서 企業家は 勞働者로 하여금 기계의 움직임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상호 조정하고 협동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産業革命 초기에 독일에서도 勞働者들은 工場勞働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工場規律과 통제를 혐오하였다. 勞働者의 노동환경은 열악하였고 賃金은 낮았으며 勞働時間은 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勞働者를 管理·統制한다는 것은 企業家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産業革命 초기의 독일 企業家が 이용한 管理方式은 官僚的·權威主義的인 命令과 指示였다. 그들은 勞働者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體刑, 罰金, 解雇 등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企業規模가 커서 1대 1의 직접적인 통제가 곤란하고 生産, 販賣 및 會計의 정확성이 요구되자 企業家は 자세히 기록된 工場規律을 도입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勞働者와 管理者를 統制하였다. 그것은 工場에서의 勞働態도와 時間 등 勞働者의 義務를 규정하고 監督의 恣意的인 權限行使를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勞働者의 統制方法은 官僚와 軍隊로부터 도입

한 것이었다. 많은 전직 官僚와 군인들이 企業에 들어 가고 官僚의 統制方法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官僚의 方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었다. 대다수의 企業은 소규모였고 조직도 人格性과 결부되어 있었으며 강한 利潤 및 市場指向性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官僚의 方法과 함께 私的 管理方法이 이용되었다. 企業家は 勞動管理를 위하여 물질적 자극으로 成果給制와 利益配分制를 도입하였다. 利益配分制는 특히 意思決定을 하는 수준의 有給管理者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었다. 官僚의 및 金錢의 方法은 家父長的 方法에 의해서 보충되었다. 企業家は 下賜金支給, 선물, 價與, 舍宅 제공, 工場村 건설, 災害 및 年金制의 도입과 기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勞動者로부터 고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상의 실적을 기대하고 企業에 대한 誠實, 忠誠 및 一體感을 기대하였다. 그것은 勞動運動에 대항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 세가지 방법은 企業, 部門, 地方 및 時代에 따라 상당히 다른 형태로 결합되고 있었다. 그것은 充員, 配置 그리고 學校, 軍役, 國家의 社會政策, 國家의 賞罰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은 勞動訓練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方法을 통해서도 급진적 無產階級意識의 출현과 증대하는 勞動運動을 방지하지는 못하였다.⁽³⁵⁾

이들 方法과 함께 勞動者를 管理하기 위한 組織體系도 새로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產業革命期의 독일에서 企業은 대부분이 單一業種의 中小企業이었고 企業家は 所有經營者로서 企業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경우 勞動者의 管理도 어떠한 體系的인 統制機構라든가 情報의 흐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企業家が 現場에서 직접 作業에 참여하고 간여하고 獎勵하고 指令하고 統制함으로써 이루어졌다. 企業家は 企業에서 발생하는 管理問題에 경험적·개별적으로 대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非公式的, 個別的 管理體制는 여러 기능을 통합한 大企業에서는 유효한 것이 못되고 그에 대신하여 새로운 管理體制가 도입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독일에서는 產業革命期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後進的 經濟狀態에서 출발하여 급속한 발전을 한 독일에서는 企業規模도 일찍부터 커지고 生産과 販賣의 機能을 통합한 企業이 성장하였다. 적절한 商業機構가 발달하지 못한 단계에서 독일 企業家は 일찍부터 원료의 확보와 제품의 販路를 확보하기 위해서 原料生産, 製造 및 販賣의 諸機能을 통합한다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纖維工業이라든가 中小企業이 우세한 諸部門 이외의 鑛業, 製鐵 및 엔지니어링工業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 部門에서는 일찍부터 垂直的 統制가 진전되었고 그것은 새로운 工場의 설립과 함께 기존의 많은 工場의 병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속에서 企業規模가 확대되고 그것이 支社, 支工場을 거느림으로써

(35) Kocka, *op. cit.*, pp. 546-8.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機能이 多角化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새로운 管理體制가 도입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企業家は 처음에는 약간의 監督 또는 管理者를 고용하고 그들의 보조를 얻어 生産 및 販賣問題 전반을 직접 管理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機能이 多角化하며 원료조달, 生産 및 販賣 등 전문화된 部門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이들 部門의 管理와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직면해서 企業家가 채택한 戰略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다. 즉 하나는 家族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官僚의인 것이었다.⁽³⁶⁾

工業化初期에는 英國에서도 그러하였고 오늘날의 發展途上國에서도 그러하듯이 일반적으로 企業家가 有能하고 믿을 만한 管理者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타인을 不信하는 풍조 속에서 企業家は 管理者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訓練과 能力보다도 忠誠心과 正直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企業家は 될 수 있는 대로 意思決定權을 行使하는 地位 그리고 統制하기 곤란한 地位에는 친척과 동창 및 친지를 기용하였다. 개인적인 忠誠이 후에 직접적·官僚的 統制, 金錢的 刺戟 및 職業倫理에 의해서 이루어진 諸機能을 수행하였다. 支工場 또는 支社의 설립에 따르는 責任과 權限의 성공적 배분에 필요한 統制와 전체적인 調整은 특히 가족의 忠誠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工業化 초기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가족적 결속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資本蓄積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大企業形成期의 管理問題의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하나의 전략으로서의 官僚的 戰略은 公共行政에서 발달한 官僚的 組織模型의 채용이었다. 일부의 중규모 및 대규모 企業에서 分業 및 職階의 패턴이 精巧하게 다듬어지고 成文化되었다. 官僚的 模型은 특히 鐵道와 같은 企業家的 및 經營者的 機能이 서로 다른 集團의 사람들에게 할당되고 있는 企業에서 早期의 體系的 管理方法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官僚的 方法은 金錢的 刺戟 및 家族的 協同이라는 方法과 함께 利用된 것이지만 官僚的 方法을 통해서 독일 企業은 管理組織面에서 英國 企業에 앞서고 있었으며 그것은 독일의 企業成長과 더 나아가 經濟成長에 중요한 資產이 되었다. 지멘스(Werner Siemens)는 「프러시아 企業의 英國 企業에 대한 우월성은 훌륭한 組織에 있다. 그것은 英國 企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주요한 諸利點보다 價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³⁷⁾

(36) Kocho, *op. cit.*, pp. 553-5.

(37) *Ibid.*, p. 555.

III. 工業化深化期の 企業家活動

1. 工業의 發展

産業革命을 거친 英國과 독일의 工業化는 1870年代 이후 더욱 확산·심화되었다. 綿工業이라든가 鐵鋼工業, 石炭産業 등 産業革命의 주도적 산업이었던 舊工業은 계속 발전하고 化學工業 및 電氣工業도 새로운 공업으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의 工業發展은 새로운 技術革新을 기축으로 이루어졌다. 技術革新은 纖維工業, 石炭産業 및 鐵鋼工業 등 舊工業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生産性은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 특히 기초산업으로서의 鐵鋼工業에서의 일련의 새로운 製鋼法の 도입은 質이 좋고 저렴한 鋼鐵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鋼時代」(The Age of Steel)를 出現시켰으며 그것은 工業一般에 큰 영향을 미쳤다.⁽³⁸⁾ 技術革新은 新工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化學工業에서는 合成染料生産方法의 발견, 硫酸 및 소다제조방법의 개량, 그리고 爆藥의 개발 등 일련의 技術革新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기반이 조성되고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化學은 人造甘味料, 人絹, 플라스틱 등의 合成製品의 생산에도 기여하였다.⁽³⁹⁾ 한편 電氣工業도 發電機의 발명에 뒤이어 각종 電氣器機가 발명됨으로써 새로운 생산기반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었다.⁽⁴⁰⁾ 産業革命期의 기술혁신이 일반적으로 경험에 기초를 둔 匠人이라든가 아마추어에 의해서 이루어졌는 데 대해서 이 시기의 그것은 科學的 知識에 기초를 둔 科學者 및 技術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특히 化學工業과 電氣工業과 같은 新工業의 경우 그와 같은 성격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技術革命은 企業規模의 확대와 作業組織의 변화 등 企業의 構造的 變化와 함께 工業化를 확산·심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工業發展에는 英國과 독일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 産業革命의 선두에 서서 월등한 工業生産力을 가지고 「世界의 工場」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英國工業은 1870年代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였다. 産業革命期의 주도산업이었고 가장 중요한 수출산업으로서 英國工業의 중심이었던 綿工業은 국제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하였다. 英國의 鐵鋼工業과 石炭産業도 계속 성장하였다. 그러나 英國工業은 그 자체로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성장속도는 완만한 것이었으며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었다. 英國과 독일의 工業成長率을 비교해 보면 1870~1913年の 年平均으로 工業

(38) 鐵鋼工業에서의 技術革新에 대해서는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pp.255-262 참조.

(39) 化學工業에서의 技術革新에 대해서는 *ibid.*, pp.269-276 참조.

(40) *Ibid.*, pp.281-290.

生産量은 각각 2.1%와 4.1%, 工業生産性은 0.6%와 2.6%였으며 輸出成長率(1880~1913年)은 각각 2.2%와 4.3%였다.⁽⁴¹⁾ 특히 新工業에서 英國은 뒤떨어지고 있었다. 1913年 현재 세계의 全化學製品生産에서 英國이 차지하는 比率은 11%에 불과하였으며 한편 독일의 그것은 24%였고 美國의 그것은 34%였다. 英國은 有機化學과 電氣化學部門에서 독일과 미국에 떨어지고 있었으며 電氣産業部門에서도 뒤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英國의 工業成長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工業의 상대적 지위도 크게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⁴²⁾

한편 독일 工業은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 工業의 급속한 成長을 기적으로 經濟가 成長하여 독일의 GNP는 1873年~1913년에 3배 증가하였다.⁽⁴³⁾ 産業革命期에 급속한 발전을 한 독일의 綿工業은 프랑스 綿工業 중심지의 하나였던 알사스地方이 병합됨으로써 급격히 발전하고 紡績部門에서는 물론 紡織部門에서도 19세기 말까지는 工場制가 일반화되었다. 毛織物工業과 絹工業도 近代의 工場工業으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亞麻工業에서도 1910年代에 들어서 近代의 工場들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纖維工業의 成長은 그 자체로서는 급속한 것이었으나 相對的으로는 지체되었으며 國際競爭力도 약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鐵鋼工業과 石炭産業은 두드러진 발전을 하였다. 독일의 鐵鋼工業은 베세머轉爐나 平爐 등 이 시기에 개발된 새로운 製鋼法을 도입함으로써 발전하였지만 특히 로렌地方의 舍燐鑛石을 이용할 수 있는 토마스製鋼法이 도입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와 함께 독일의 石炭生産과 鐵鑛石生産도 크게 증가하였다. 機械工業도 크게 발전하였다.⁽⁴⁴⁾ 化學工業과 電氣工業의 발전은 더욱 두드러진 것이었다. 독일의 化學工業은 硫酸과 알칼리와 같은 重化學製品의 제조부문, 燐酸鹽과 같은 化學肥料製造部門 그리고 콜타르와 鑛物染料, 火藥, 藥品, 化粧品 및 플라스틱物質의 제조부문 등 전부문에 발전하였다. 특히 合成染料는 世界總生産의 4분의 3을 차지하게 되고 1913年の 染料輸出額은 약 2억마르크에 달하였다.⁽⁴⁵⁾

독일 電氣工業의 효시는 1847년의 지멘스(Werner Siemens)와 할스케(Johann Georg Halske)에 의한 電氣會社의 설립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880年代에 들어서였다. 1883년에는 라테나우(Emile Rathenau)에 의해서 독일 최초의 전기분

(41) D.H. Aldcroft (ed.), *The Development of British Industry and Foreign Competition 1875~1914*, 1968, p. 13.

(42) Landes, *op. cit.*, pp. 328-332.

(43) Kocka, *op. cit.*, p. 555.

(44) O.W. Henders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Continent: Germany, France, Russia 1800~1914*, London, 1961, pp. 66-68.

(45) *Ibid.*, p. 71; do., *The Rise of German Industrial Power 1834~1914*, Berkeley, 1975, pp. 186-189.

야의 株式會社인 독일에디슨會社가 설립되고 그것은 4年 후에 AEG(Allgemeine Elektrizitäts Gesellschaft)가 되어 지멘스·할스케會社와 함께 大電氣會社로 발전하였다. 그 후 많은 電氣會社가 설립되어 都市의 조명이라든가 電車施設이 확충되었고 각종 전기관계제품이 생산되었다. (46) 1913년에 독일의 電氣工業은 14만명의 勞動者를 고용하고 世界電氣製品의 35%(英國 16%, 美國 29%)를 생산하였다. (47)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급속한 工業成長이 이루어진 결과 이들 공업부문에서 독일은 「世界の工場」인 英國을 앞지르게 되었고 질적으로도 고도의 資本主義段階에 도달하게 되었다.

2. 大企業의 成長과 經營組織

1870年代 이후의 工業化의 深化過程에서 企業組織도 변화하고 大規模企業이 성장하였다. 새로운 技術革新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企業의 資本 특히 固定資本의 규모는 個人企業 또는 파트너쉽형태로는 조달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고 이에 株式會社組織이 보급되었다. 특히 1873년부터 1890년대초에 이르는 「大不況」(Great Depression)기의 격화된 경쟁 속에서 企業은 자체의 확장과 他企業의 統合을 통해서 規模의 經濟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종래 일반적으로 中小規模의 企業이 單一的 機能을 수행한 것과는 달리 大企業이 成長하고 企業의 機能도 여러 段階에 걸친 生産 및 販賣機能으로 多角化되고 企業의 經營單位도 立地的으로 분산되게 되었다. 그와 함께 企業의 經營組織도 企業家가 所有經營者로서 단독으로 모든 機能을 수행하던 단순한 것에서 所有와 經營이 분리되고 專門經營者가 부문별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복잡한 것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組織된 大企業이 經濟活動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獨占資本主義, 「組織된 資本主義」 또는 「經營資本主義」가 전개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英國과 독일의 사이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과정은 英國에서는 第1次大戰에 이르기까지 크게 進展되지는 않았다. 自由主義的 傳統이 강한 英國에서는 1862년에 株式會社設立이 自由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工業企業組織으로서는 여전히 個人企業과 파트너쉽組織이 일반적이었다. 그 속에서 株式會社組織의 企業은 점차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株式會社는 公共事業, 銀行, 保險, 外國貿易部門에서 나타났다. 工業部門에서는 造船, 鐵鋼, 電氣 등 資本集約的인 부문에서 株式會社가 점차적으로 나타났지만 綿工業部門에서는 그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英國에서는 株式會社組織의 企業도 個人企業, 파트너쉽 또는 家族企業의 성격을 농후하게 띤 것이었다. 오랜 資本蓄積過程에서 강한 自己金融力을 가진 英國의 企業家は 경제

(46) Henderson, *The Industrial Revolution...*, pp.71-72; do., *The Rise...*, pp.190-191.

(47) S.B. Clough and C.W. Cole, *Economic History of Europe*, 3rd ed., Boston, 1952, p. 549.

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株式會社組織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한정된 범위에서 資本을 조달하고 利潤을 再投資한다고 하는 전통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株主數가「일반적으로는 20名을 넘지 않으며 보통은 7名 이하」⁽⁴⁸⁾인 非公開株式會社(private company)組織이 일반화되었다. 第1次 大戰 전야에 62,762개 株式會社의 약 5분의 4는 非公開株式會社 즉 새로운 의모를 가진 파트너십이었다.⁽⁴⁹⁾ 公開株式會社(public company)의 資本調達도 地方的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런던은 두말할 것도 없이 資本市場의 중심지였지만 주로 國債, 外國 및 植民地證券, 그리고 國際的 또는 帝國的 金融 및 商業關係 大會社의 株式을 거래했으며 런던株式去來所에서 거래된 産業企業株式은 首都圈에 있는 企業의 그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런던의 金融·資本市場으로서의 시티를 통해서 거액의 자본이 해외에 投資되었다. 예를 들어 1865~1914년에 總純資本形成에서 對外投資가 차지하는 比率은 독일이 12%였는데 대해서 英國은 35%였다.⁽⁵⁰⁾ 한편 地方的 工業中心地는 地方産業企業委員會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地方企業의 資金調達도 지원하였다. 英國에서는 강력한 投資銀行도 발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株式會社組織의 銀行도 크게 성장하였지만 英國의 銀行은 産業企業에 대해서 단기적인 運營資金을 공급하는 商業銀行의 機能을 수행하였을 뿐 長期固定資本을 공급하는 投資銀行의 機能까지는 수행하지 않았다.

企業 내부 및 외부에서 地方的으로 資金을 조달할 수 있었고 또한 投資銀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資本供給條件에서 英國의 企業家들은 20世紀에 들어와서도 전통적인 형태의 企業組織과 行動樣式을 답습하였다. 이 시기의 英國에서는 독일에서와 같은 金融資本主義는 전개되지 않았다. 企業家가 株式會社組織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급속한 企業擴張을 위해서 資本動員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有限責任制에서 오는 편의와 安全性에 보다 큰 관심이 있었다. 非公開株式會社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公開株式會社에서도 家族 또는 親知의 結合이 수행한 역할은 결정적이었으며 그런 속에서 所有와 經營의 分離도 진전되지 않았다. 따라서 專門經營者層도 나타나지 않았다. 20世紀에 들어 株式會社가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大企業에서는 所有와 經營이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企業構造上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大株主集團으로 구성된 理事會가 企業의 政策을 결정하였다. 페인은 英國에서는 第1次大戰 이전의 4半世紀 동안에 「經營資本主義」의 뿌리가 認知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

(48) Payne, *op. cit.*, pp. 203-4.

(49) David S. Landes, "The Structure of Enterprise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Cases of Britain and Germany," *Extrait des Rapports du XI^e Congrès International des Sciences Historiques*, Stockholm, 1960, pp. 114-5.

(50)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p. 331.

다. (51)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부분적인 현상에 불과하였다.

한편 1885~1914년에 진전된 企業合併도 企業規模의 확대를 가지었다. 그러나 그것이 專門經營者의 고용을 필수적으로 하는 企業의 內部組織上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아니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企業合併은 대부분이 單一商品生産會社의 水平的 합병으로서 여러 機能의 統合이라든가 多角化가 수반된 것은 아니었으며 그 動機도 效率性的의 증대보다도 상당한 정도로 獨占을 유지하여 價格을 유지하고 그에 대응한 生産量을 統制한다고 하는 防禦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專門經營者의 組織을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은 아니었다. (52) 英國의 工業部門에서 個人企業 또는 小規模 파트너쉽이 결정적으로 소멸하고 株式會社組織의 企業이 일반화되는 것은 兩次大戰中の 期間였다. 특히 未公開株式會社의 수는 크게 증가하여 1938년에 公開株式會社의 그것의 10배나 되었다. 그러나 總資本金의 규모로 보면 前者는 후자의 2분의 1 정도로서 그의 經濟的 地位는 저하하고 있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所有와 經營이 어느 정도 分離된 企業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大企業에서는 1人 또는 理事會가 공동으로 所有한 株式比率이 감소하고 株式所有가 수천 또는 수만으로 분산되었다. 그러나 大企業에서도 所有와 經營의 分離는 아직도 部分的인 것이었다. (53)

<表 2> 大企業合併의 類型(1880~1918)

合併形態	大企業合併數		大企業合併에서 소멸한 企業數		大企業合併에서 소멸한 企業價値	
	數	比率(%)	數	比率(%)	價値 (100만파운드)	比率(%)
水平的合併	64	87	643	98	116	92
垂直的合併	9	12	11	2	10	8
多形態合併	1	1	1	0	0.6	0
計	74	100	655	100	126.6	100

한편 독일에서는 企業規模의 확장, 機能의 多角化, 所有와 經營의 分離 및 專門經營者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진전되었다. 그것은 株式會社의 보급, 카르텔 및 企業合併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銀行은 資金面에서 그것을 뒷받침하였다. 이 시기에 독일에서는 「組織된 資本主義」, 「經營資本主義」가 전개되게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資本蓄積의 기반이 약했던 독일에서 企業規模의 확장은 株式會社를 통한 大衆資本金을 동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독일에서의 株式會社組織은 법적으로 제약된 속에서

(51) Payne, *op. cit.*, p. 204.

(52) *Ibid.*, p. 207.

(53) *Ibid.*, p. 211.

도 1840年代에 특히 鐵道企業에서 광범하게 도입되고 鑛山, 製鐵, 機械, 섬유 등 諸産業의 企業에도 확대되어 1850年代와 60年代에는 일반적으로 보급되었다. 특히 1870~72년에 株式會社設立이 自由化되어 「創立熱狂時代」(Gründerjahre)가 現出되고 그후 株式會社의 설립은 크게 진전되었다. 예를 들어 1873년에 株式會社總拂入資本金은 12억마르크였던 것이 1913년에는 10倍로 증가하였다. 設立된 株式會社의 數와 資本金總額은 1886~95년에 1,696개社의 16억 8,600만마르크, 1896~1905년에 2,015개社의 31억마르크, 그리고 1906~13년에 1,467개社의 20억 8,700만마르크였다. 이들 株式會社의 대부분은 새로이 설립된 것이 아니라 個人企業으로부터 전환된 것이었다. 1902년에 프러시아에 있었던 株式會社 가운데 1870年 이전에 설립된 것은 전체의 9.3%에 불과하였는 데 대해서 1871~1895년에는 전체의 54.3% 그리고 1895年 이후는 36.4%에 해당하는 株式會社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總株式資本에서 産業部門의 資本이 차지하는 比率은 1873년에는 30%에 불과했으나 1903~4년에는 鑛業을 포함하여 그것은 약 50%에 달하였다.⁽⁵⁴⁾

한편 企業規模도 擴大되었다. 資本金 1,000만마르크 이상의 會社數는 1886~1909년에 74社에서 229社로 증가하였으며 루르地方에서는 1893년에 總生産量의 36.6%(1,430만톤)의 石炭을 생산하고 있던 10大炭鑛企業이 1910년에는 59.3%(4,900만톤)을 생산하였다. 한편 1882~1907년에 總工業從業員에서 50名 이상의 工場에서 노동한 從業員의 比率은 26.3%에서 45.5%로 그리고 1,000명 이상의 工場에서 노동한 從業員의 比率은 7.2%에서 13.7%로 각각 증가하였다. 株式會社는 모든 産業部門에서 나타났지만 특히 鑛山, 製鐵, 機械·金屬, 化學, 電氣, 섬유 등 諸産業部門에서는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企業의 대규모화가 진전되었다. 이들 부문에서는 전체 종업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50명 이상의 工場에서 노동하였다. 工場은 所有와 管理의 단위로서의 企業이라기 보다 地域的 또는 물리적 생산의 단위이며 한 企業이 여러 工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⁵⁵⁾ 工場의 집중을 통해서 企業規模는 확대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技術革新이 요청되는 속에서 독일 企業家들은 株式會社組織을 통해서 企業規模를 확장하여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면서 競爭의 市場經濟에서 安定的인 성장을 지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873年~1890年代 중엽의 장기간에 걸쳐서 物價가 하락하고 過剩生産이 이루어져서 競爭이 격화되는 속에서 보다 安定的인 成長을 실현하기 위해서 카르텔을 조직하여 價格을 협정하거나 生産量을 할당하였다.

독일에는 카르텔 결성에 유리한 諸條件이 있었다. 첫째로 맨체스터 自由主義의 思想的 進

(54) Kocka, *op. cit.*, p. 567.

(55) *Ibid.*, pp. 556-7.

통이 없던 독일에서는 世論은 카르텔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으며 카르텔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호되었으며 정부에 의해서도 권장되었다. 독일에서 카르텔規制法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23년에 이르러서였으나 그것도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⁵⁶⁾ 둘째로 독일에서는 産業의 地域的 集中이 고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카르텔이 많이 나타난 루르地方은 1913年 현재 독일 石炭生産과 鋼鐵生産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⁵⁷⁾ 셋째로 독일에서는 標準的 商品의 大量生産이 용이하고 유행과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重化學工業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보호관세에 의해서 외국으로부터의 경쟁이 배제되어 가격협정이 가능하였다. 넷째로 독일에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銀行資本의 지원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에서는 카르텔組織이 두드러지게 진전되었다. 1870年代의 초기 카르텔은 주로 重工業部門에서 나타났으며 그 후 그것은 板유리, 시멘트 및 化學工業등 제부분으로 확산되었다. 1879년에는 개스·石炭聯合, 1881년에는 칼륨신디케이트(Pottasche-syndikat), 1893년에는 라인·베스트팔렌 石炭신디케이트(Rheinisch-Westfälische Kohlen-syndikat), 그리고 1904년에는 製鋼聯合(Stahlwerksverband) 및 化學工業에서의 2대 카르텔이 각각 조직되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의 카르텔은 1875년의 8개, 1885년의 90개, 1896년의 250개, 1905년의 385개, 1911년의 550내지 600개, 그리고 1930年代 초의 2,000~3,000개로 급증하여 거의 모든 産業을 망라하게 되었다.⁽⁵⁸⁾ 1907年 현재 독일 諸産業의 生産에서 카르텔이 차지하는 比率은 칼륨 100%, 製紙 90%, 無煙炭 82%, 粗鋼 50%, 시멘트 48%, 유리 36%, 鐵道輸送 23%, 鐵鋼製品 20%였으며 全産業 總生産에서의 그것은 25%였다. 그리고 1914年 이전에 독일 企業들은 약 100개의 國際카르텔에 가입하고 있었다.⁽⁵⁹⁾ 장기에 걸친 物價下落 및 過剩生産이라는 條件에서 독일 企業家들은 카르텔을 통해서 경쟁을 배제하고 企業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카르텔은 기본적으로 單一生産部門의 獨立企業들로 구성된 水平的 結合體로서 경쟁을 배제하고 일정한 價格水準을 유지하는 데에 유효한 독점조직이었다. 그러나 독일 企業家들은 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企業規模를 확대하고 機能을 多角化하여 競爭的 市場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면서 企業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였다. 企業規模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본 株式會社組織의 도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와 함께 企業合併을 통해서도

(56) Henderson, *The Industrial Revolution...*, p. 60.

(57) *Ibid.*, pp. 66, 68.

(58) *Ibid.*, p. 60.

(59) Carlo M. Cipolla (ed.), *The Fontana Economic History of Europe: The Emergence of Industrial Societies*, Part 1, Glasgow, p. 138; Kocka, *op. cit.*, p. 564.

이루어졌다. 유력한 企業에 의한 약소 企業의 합병이 광범하게 나타나고 그 속에서 獨占의 大企業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鑛山, 鐵鋼, 電氣機械, 化學 등 資本集約的인 産業部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企業의 대규모화는 새로운 生産計劃과 새로운 諸機能을 포함하는 企業活動의 확대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大企業은 관련되는 여러 단계의 生産 과정을 통합함으로써 技術의 效率性を 높이고 原料生産에서 加工 그리고 輸送, 販賣 등의 多角的인 機能을 통합함으로써 原料確保에서 販賣에 이르기까지의 不確實性を 배제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極小化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鑛業部門의 多角的인 機能을 통합한 大企業은 石炭 또는 鐵鑛石의 채굴에서 銑鐵 및 鋼鐵生産과 여러 段階의 金屬加工過程을 거쳐 대로는 重機械生産, 副産物의 利用 그리고 製品의 販賣에 이르기까지 여러 段階를 통합하였다. 이러한 예는 철강, 전기, 화학 등 諸産業部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⁶⁰⁾ 企業의 대규모화와 機能의 多角화가 추구되는 속에서 企業의 垂直的인 統合이 진전되었다.

株式會社組織을 통한 企業의 대규모화, 企業合併 그리고 카르텔의 진전에 있어서 독일의 株式會社組織의 銀行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 銀行 중에서 특히 유력한 것은 샤프하우젠 銀行(Schaafhausensche Bankverein, 1848), 割引銀行(Disconto-Gesellschaft, 1851), 다름슈타트 銀行(Darmstadt Bank, 1853), 베를린 商業銀行(Berliner Handelsgesellschaft, 1856) 독일 銀行(Deutsche Bank, 1870) 및 드레스덴 銀行(Dresdner Bank, 1872) 등 베를린의 大株式銀行들이었다.⁽⁶¹⁾ 이들 銀行은 베를린의 株式交換을 지배하고 기존의 個人銀行 또는 地方銀行들에 영향을 미치고 全國的 및 國際的으로 支店網을 형성하였다.

이들 銀行은 통상적인 商業金融만이 아니라 長期信用과 株式發行을 통해서 産業金融도 하는 兼業銀行으로 발전하였다. 즉 이들 銀行은 일반대중으로부터 광범하게 預金을 받아들여 短期商業金融만이 아니라 産業企業에 대해서 長期金融을 하였다. 이들 銀行은 産業企業에 대해서 長期信用을 제공하는 한편 企業의 社債 및 株式販賣를 지원하고 大衆投資者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引受·所有하였다. 그 경우 이들 銀行은 産業企業에 金融的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 企業의 經營에까지 간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銀行은 제공한 長期金融의 안전한 운용 및 회수를 기하였다. 이들 銀行은 금융지원을 해준 企業의 중요한 投資決定에 발언권을 갖고 人事問題에 영향을 미쳐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거래관계에도 간여하였다.

銀行의 이러한 영향력은 株式會社組織 企業의 監査役會(Aufsichtsrat)를 통해서 행사되었다. 독일 企業의 최고경영기구는 監査役會와 取締役會(Vorstand)로 구성되어 있었다. 監

(60) Kocka, *op. cit.*, pp.559-61 참조.

(61) *Ibid.*, p.565.

査役會의 機能은 專門經營人으로 구성된 執行機構인 取締役會의 人事權과 監督權을 가질 뿐만 아니라 企業의 가장 중요한 戰略의 意思決定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다. 1914年 이전에 銀行의 取締役들은 독일의 全株式會社의 監査役의 20%를 차지하여 單一 그룹으로서는 최대의 것이 되었다. 1913~14년에 독일 銀行은 186개 會社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주요 銀行의 取締役들은 第1次大戰 이전에 각각 監査役會에서 44個席을 가지고 있었다. 監査役會는 信用撤回과 株式發行拒否로 위협하고 또한 모든 종류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서 大銀行이 工業生産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수단이었다. (62)

銀行은 金融支援을 한 企業의 效率과 收益性を 높이려고 會計 및 管理方法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競爭을 배제하면서 規模의 經濟를 실현한다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다. 銀行으로서의 금융적 지원을 한 企業들이 상호경쟁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서는 것보다는 그들을 합병하거나 카르텔화하여 경쟁을 배제하면서 독점적 지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銀行은 企業合併과 카르텔화와의 움직임을 金融面에서 지원하고 그러한 움직임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銀行의 資金上의 뒷받침 밑에서 企業은 규모를 확대시키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企業을 운영하고 安定的인 성장을 하였다.

銀行과 産業企業의 상호의존성의 정도는 産業部門과 企業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달랐다. 産業部門別로 보면 銀行의 영향력이 큰 것은 鑛山業이었다. 企業別로 보면 自己金融力이 약한 企業은 銀行의 영향력을 크게 받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수익성이 높은 大企業의 경우는 오히려 銀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電氣部門에서 지멘스(Siemens)의 大家族企業은 專門經營人 라테나우(Emile Rathenau)의 大企業인 AEG 만큼 銀行의 영향력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아 銀行의 企業에 대한 영향력은 世紀의 전환기에 정점에 달했다가 그후 저하경향을 나타내었다. 합병을 통해서 企業의 資本規模가 單一銀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巨大化해짐에 따라 銀行들은 상호협력하고 大銀行集團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大企業의 自己金融比率는 높아졌다. 兩次大戰 中間期와 특히 第2次大戰 후에 自己金融比率는 현저히 높아졌다. 그만큼 그들 企業의 資本市場 및 銀行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높아지게 되었다. (63)

企業의 대규모화 및 機能의 多角化는 그에 대응해서 企業의 內部組織의 변화와 새로운 經營體制의 도입을 결과하였다. 무엇보다도 企業이 株式會社組織으로 전환되고 대규모화

(62) Kocka, *op. cit.*, p. 568.

(63) *Ibid.*, pp. 568-9.

됨에 따라 所有와 經營이 분리되게 되었다. 所有와 經營의 분리는 20世紀에 들어 주식회사 조직의 大企業에서 진전되었다. 물론 이러한 분리가 반드시 모든 株式會社組織의 企業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멘스·할스케(Siemens & Halske)會社の 지멘스(Wilhelm Siemens)에서 볼 수 있듯이 株式이 個人 또는 家族에 集中되어 있어 외형적으로 株式會社 형태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同族企業인 경우에는 所有와 經營의 기능은 統合된 형태로 수행되었다. 사실 독일에서는 同族企業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企業家の 역할과 리더십은 所有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株式이 분산되어 있는 大企業에서는 所有와 經營의 분리는 진전되었고 고용된 企業家에 의해서 중요한 意思決定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세기 말의 世論과 所有企業家は 所有에 기반을 두지 않은 고용된 企業家에 대해서 企業이 실패하는 경우 그들이 모든 危險負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할 경우에도 그들이 모든 利益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 動機와 效能面에서 所有에 기반을 둔 企業家만큼 企業家活動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불신하였다. 이러한 불신은 점차 소멸되어 갔지만 第2次大戰 이후에도 잔존하였다. 그러한 속에서도 고용된 企業家の 중요성은 커지게 되었다.

한편 企業의 管理體제도 변화하였다. 중규모 企業에서는 전문화된 기능을 가진 정상적인 管理者로서 技術經營者와 管理經營者가 나타났다. 多角的 機能을 수행하는 大企業에서는 技術 및 管理經營者(取締役會 構成員)의 수는 증가하였고 그들은 보통 販賣, 生産, 財務, 總務, P.R. 등 職能別 부문조직을 담당하였다. 分業體제의 진전과 權限序列의 확립이 요청되는 속에서 企業에서 組織이 강조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公共機關의 官僚的 組織模型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企業組織의 전개와 함께 世紀의 전환기에 大企業에서는 「科學的 管理」가 나타났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美國의 「테일러 시스템」에 자극을 받은 것이었지만 그와는 독립적으로 전개된 것이었다.⁽⁶⁴⁾

3. 社會的 環境과 企業家の 資質

(1) 英 國

企業이 일반적으로 個人 또는 家族企業의 性格을 벗어나지 못하고 所有와 經營이 분리되지 않고 專門經營者의 대두를 수반한 組織上의 변화가 진전되지 않았던 英國에 있어서는 새로운 經濟的 環境에 대응한 企業家活動이 적극적으로 展開되지는 못하였다. 個人企業—自己金融—利潤의 再投資—企業規模의 확대라는 企業家活動의 패턴은 英國이 工業化의 선두에 서있던 産業革命期에는 전형적인 企業成長의 조건이 되었으나 獨占段階에서 새로운

(64) Kocka, *op. cit.*, pp. 574-5.

技術革新을 수행하고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는 데에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더구나 家族企業의 경우 企業家活動은 소극적·保守的 경향을 나타내었다.⁽⁶⁵⁾

란데스(David S. Landes)는 19世紀 말엽의 英國의 企業家活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英國企業의 약점은 이와 같은 아마추어리즘과 자기만족의 결합이 반영된 것이다. 英國商人은 일단 世界市場을 장악하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英國領事報告書에는 英國輸出業者의 무능, 그들이 商品을 고객의 嗜好와 호주머니 사정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新商品을 新地域에서 販賣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全世界의 누구나 英語를 읽을 수 있고 파운드·실링·펜스로 計算을 하여야 한다고 완고하게 주장을 한다는 것 등으로 가득차 있다. 그와 함께 英國의 製造業者는 제품의 體裁에 대한 무관심, 新技術에 직면한 경우의 保守性, 大量生産에서 필수적인 劃一性을 위해서 진통이 갖는 個性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⁶⁶⁾ 한편 알드크로프트(D.H. Aldcroft)는 英國의 企業家가 技術進步, 生産方法, 科學研究 및 技術教育 그리고 商品方法 등에서 뒤떨어져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⁶⁷⁾

英國의 企業家活動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소극적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하바쿠크(H.J. Habakkuk)는 英國工業의 低成長은 企業家活動의 결함의 原因이지 결과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 시기에 英國企業家の 공급이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傳統的으로 캐리어(career)를 선호하는 英國人의 취향으로 말미암아 有能한 者가 實業界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으나 그것보다 經濟의 점차적 확대, 낮은 利益率, 그리고 낮은 市場成長率 등 經濟的 條件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⁶⁸⁾ 또한 윌슨(Charles Wilson)은 비누, 賣藥, 大量生産食品 및 輕機械 등 新工業에서는 이 시기의 企業家는 先代와 마찬가지로 정력적이고 창조적인 企業家活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⁹⁾ 한편 알드크로프트

(65) D.H. Aldcroft, "The Entrepreneur and the British Economy 1870~1914,"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XVII, No. 1, August 1964, p.131; do., "Technical Progress and British Enterprise 1875~1914," *Business History*, Vol. VIII, No. 2, July 1966, pp.134-5; Charles P. Kindleberger, *Economic Growth in France and Britain 1851~1950*, N.Y., 1964, pp.124-5.

(66)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p.337; do., "The Structure of Enterprise...", p.115 참조.

(67) Aldcroft, "The Entrepreneur...", pp.114-134.

(68) H.J. Habakkuk, *American and British Technology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Search for Labour-Saving Inventions*, Cambridge, 1967, pp.212-13; 趙誠煥교수도 이 時期의 英國工業의 低成長의 原因으로 企業家活動의 쇠퇴보다 經濟的 條件을 重視하고 있다. Sung-Hwan Jo, "Retardation in British Industrial Growth (1870~1914): Problems in Interpretation," *Kyungjesahak*, No. 3, January 1979 참조.

(69) C. Wilson, "Economy and Society in Late Victorian Britain," *Economic History Review*,

(D.H. Aldcroft)는 그가 편집한 책의 序文에서 기고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外國競爭이 英國工業의 약점을 노출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의 英國企業家 전체가 競爭國企業家만큼 效率的이지도 進取的이지도 못하였다고 결론짓는 것은 잘못이며, 이 시기의 英國工業 전체가 非競爭的이고 非效率的이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⁷⁰⁾ 한편 맥클로스키(D.M. McCloskey)는 計量經濟史의 方法을 이용한 英國 鐵鋼工業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企業家活動이 실패하지 않았으며 石炭產業에서의 生産性도 낮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⁷¹⁾ 또한 페인(P.L. Payne)은 企業家活動의 실패라는 가정은 1870年代 이전의 英國經濟의 압도적 우위를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그 이후의 상대적 쇠퇴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1873年 이전에 英國經濟의 우위성을 낳은 모든 복합적 상황은 요행한 것이었고 19세기 영국경제의 발전과정을 초기에는 활발했던 企業家活動의 침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⁷²⁾ 이렇듯 이 시기의 英國企業家活動의 成敗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論議가 이루어져 왔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史實이 밝혀지고 그러한 기반에서 見解差도 좁혀질런 지도 모른다.

페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經濟成長에는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1870年代 이후의 영국 經濟의 상대적 정체의 원인을 전적으로 英國企業家活動의 실패로 돌린다는 것은 企業家에게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研究들은 英國工業이 여러 부문에서 높은 生産性과 競爭力을 가지고 있었고 英國의 企業家들이 현실적인 與件에 대해서 합리적·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으며 企業家活動의 실패는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英國의 企業家活動이 그 자체로서는 실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적극성·진취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독일과의 대비에서 볼 때 새로운 經濟的 與件에서 필요로 하는 合理性·效率性을 충분히 실현할 만큼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초의 産業革命을 수행하여 「世界의 工場」으로서의 압도적 公업 생산력을 기반으로 世界市場을 지배하고 또한 植民帝國으로 군림한 시기에 自己滿足에 빠지고 있던 英國企業家가

2nd ser., Vol. XVII, No.1, August 1965, pp.194-5; William Ashworth, *An Economic History of England 1870~1939*, London, 1960, pp.78, 241.

(70) 또한 그는 특정 工業部門의 상대적 후진성은 企業家活動의 실패 등 어느 한 要因에 基因하는 것이 아니라, 市場條件의 惡化 등 여러가지 要因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D.H. Aldcroft (ed.), *op. cit.*, pp.32-6.

(71) D.M. McCloskey, *Economic Maturity and Entrepreneurial Decline: British Iron and Steel 1870-1913*, Cambridge, Mass., 1973.

(72) P.L. Payne, *British Entrepreneurship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1974, p.56; do., "Industrial Entrepreneurship...", *op. cit.*, p.211.

先代와 같은 進取的·창조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안이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⁷³⁾ 後進의 인 상태에서 英國經濟의 충격을 받으면서 그것을 캐취·업하려는 국민적 노력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독일의 企業家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企業成長을 이룩해 나갔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란테스는 이 시기의 英國企業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이 시기의 英國의 企業家들은 3世로서 1世가 끊임없는 근면과 인색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절검하면서 企業을 일으키고 뒤이어 전실한 企業을 인계받은 2世가 그것을 처음부터 보다 큰 야망을 가지고 생각조차도 못했으리 만큼 成長시키고 은퇴한 데 대해서 부유한 집의 자식으로 성장하여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地主로서의 전원생활을 동경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여 자신의 企業을 株式會社組織으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實業界에 남았으나 企業家로서는 아마츄어로서 여가를 즐기면서 慣例의인 일을 처리하였음에 불과하였다. 일부는 企業을 專門經營者들에게 委任하였으나 그들도 유효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株式會社의 경우 경영진은 가끔 企業所有者一族의 타산에 의해서 결정되었다.⁽⁷⁴⁾ 퍼킨도 빅토리아朝中期에 승리하였던 企業家의 理想이 1880년까지는 쇠퇴하게 되었으며, 그 쇠퇴는 外的으로는 다른 階級에 의해서 주어진 거의 自動的인 尊敬의 쇠퇴와 內的으로는 보다 중요한 것이지만 企業家 자신이 갖고 있던 信念과 自信의 정도의 쇠퇴라는 二重의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⁵⁾ 이 시기의 英國企業家活動의 性格은 英國社會의 價値體系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英國社會는 土地貴族=젠틀맨(gentleman)의 價値體系가 지배적인 사회였다. 所領을 所有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는다는 것 이상으로 社會的 威信의 기반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土地를 기반으로 하는 貴族이야말로 사회적으로 높이 評價 받고 政治家라든가 高級官僚 및 軍人이라고 하는 社會的 機能을 수행하면서 上流階級으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英國의 土地貴族은 閉鎖的·固定的 階級이 아니라 卑賤한 신분의 출신자도 經濟的으로 성공하면 土地를 구입하여 進入할 수 있는 개방적 계급이었다. 이러한 價値體系 속에서 英國의 企業家는 企業文化를 확대하여 社會階級으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社會의 주요한 지위를 확보하려 하기보다는 企業經營에서 성공하면 土地를 구입하고 젠틀맨으로서의 上流階級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지향하였다. 英國에서는 社會的 성공의 상

(73) 알드크로프트는 19世紀 말엽에 유럽 및 美國市場이 좁아지게 되자 英國 企業家는 商品輸出을 外國競爭者들과 競爭하기 보다는 帝國과 1次商品生産國으로 돌렸으며 이러한 안이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技術革新에 자극을 갖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Aldcroft, "Technical Progress...", pp. 134, 138-9. 킨들버거는 이 時期의 英國企業家活動에서 나타난 주요한 변화의 하나로서 마아케팅에 대한 관심의 감퇴를 들고 있다. Kindleberger, *op. cit.*, pp. 125-6.

(74)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pp. 336-7.

(75) Perkin, *op. cit.*, pp. 437, 453.

정은 부유함이 아니라 地主・貴族階級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價值體系는 19世紀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産業革命 이전부터의 오랜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콜먼은 産業革命 이전의 英國의 社會階層을 젠틀맨과 플레이어(player)로 구분하고 産業革命期에는 後者로부터 前者로의 社會的 上昇機會가 넓어졌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어느 의미에서 産業革命은 젠틀맨이 아닌 사람들의 革命이었다. 그리고 부분적인 革命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조만간에 革命家의 價値는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자신들의 基準을 수정한 남아있는 엘리트의 價値에 굴복하였다. 英國産業革命의 企業的 및 技術的 추진력이 19世紀 말에 그 힘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 이유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革命家가 너무나 성급하게 젠틀맨이 되었기 때문이다.」⁽⁷⁶⁾ 産業革命期에 「革命家」=企業家로서 성공한 資産家가 所領을 구입하여 土地貴族=젠틀맨이 되어 社會的으로 상승한 예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에 걸쳐서 所領 구입이 빈번하였고 많은 貴族이 창출되었다. 한편 土地貴族도 産業企業의 勃興期에 전통적 생활태도에 집착함으로써 經濟的・社會的으로 成長하는 産業企業家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産業企業家에의 投資를 통해서 실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社會의 엘리트로서의 地位를 유지하였다.

産業革命에 뒤이어 工業化가 진전되고 産業資本이 성장하는 속에서 土地貴族의 經濟的 地位는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870年代 이후의 장기의 農業不況 속에서 借地權의 강화라든가 小農地 장려를 위한 정책이 도입되어 地主의 所有權이 제한된다든가 土地稅 부담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土地所有의 經濟的 意義는 저하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土地貴族은 資産의 多樣化를 추구하여 土地資産을 金融資産으로 전환하였다. 金融資産은 시티(런던의 金融・資本市場)에서 거래된 國內外的 각종 債券 및 株式이었다. 이렇게 해서 地代取得者였던 土地貴族은 利子를 取得하는 金融資産家로 性格的인 전환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金融資産家層이 성립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주체는 아니었다. 그들은 시티와 동일한 利害關係를 가지면서 동일인인 경우가 많았다. 土地貴族은 金融資産家로서의 性格을 동시에 가지면서 經濟的 地位를 유지하였으며 그러한 속에서 土地貴族의 價值體系는 계속 유지되었다.⁽⁷⁷⁾

이러한 價值體系下에서 社會的 엘리트의 理想은 젠틀맨이었다. 그래서 성공한 企業家는 所領을 구입하고 젠틀맨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가 社會的으로 젠틀맨으로 認定을

(76) D.C. Coleman, *op. cit.*, pp.96-7.

(77) 楊天溢, 「企業者活動と文化構造(三) —イギリスにおける土地貴族のエートスを中心に」, 『亞細亞大學經營論集』, 第11卷 第1號, 1975年 10月 참조.

받지는 못하였다. 그들이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젠틀맨으로서의 敎養과 生活態度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젠틀맨은 勇氣가 있고 妥協과 自制를 할 수 있고 美的 감각을 갖고 유머가 있고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고 폭넓은 敎養을 가져야 하였다.⁽⁷⁸⁾ 무명의 小商品生産者로 立身한 그들이 企業家로 성공하여 所領을 구입하고 젠틀맨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젠틀맨적인 敎養과 生活態度를 갖출 수는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젠틀맨의 敎育기관으로서의 퍼블릭 스쿨이라든가 옥스·브리지를 거쳐야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2世 또는 3世에게 어린 때에는 家庭敎師를 붙히고 그 후에는 이들 學校로 보내었다. 19세기 후반기에는 많은 퍼블릭 스쿨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특히 옥스·브리지를 졸업하고 젠틀맨적 敎養과 生活態度를 갖춘 3世의 최고의 生活目標은 컨트리하우스에 거주하면서 궁극적으로는 中央政界에 진출하여 타고난 指導者로서의 責務를 다하고 젠틀맨으로서의 相應한 生活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경우 그들은 企業家로서의 地位에서 은퇴한다든가 아니면 젠틀맨의 生活을 하면서 아마추어로서 企業經營을 하였다. 하바쿠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土地貴族·軍人·官僚 및 知的 自由業이 높히 평가되는 價値體系下에서 유능한 人材는 그곳으로 들어 갔으며 따라서 資本과 能力이 工業과 商業으로부터 土地所有와 政治로 유출되었다.⁽⁷⁹⁾ 한편 獨占段階에서는 産業革命期에 있어서와 같이 中産層에서 立身해서 大企業家가 된다는 것은 곤란하였다. 특히 鐵鋼工業이라든가 新工業에서는 그러하였다. 따라서 英國에서의 企業家의 供給源泉은 한정되고 불리한 것이었다.

한편 새로운 技術革新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英國의 企業家는 그에 적합한 資質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젠틀맨 敎育은 敎養敎育이지 專門的 知識의 敎習은 아니었다. 英國社會에서는 젠틀맨쉽은 아마추어리즘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아마추어리즘이 존중되고 專門性은 경시되었다. 퍼블릭 스쿨이라든가 옥스·브리지는 古典敎育을 강조했지만 技術敎育을 하지 않았다. 技術은 學問이 아니라고 보았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신설된 地方大學에서는 技術敎育도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그들 大學은 「붉은 벽돌」이라 불리워지고 중요시되지 않았다. 企業經營에서는 專門的 機能보다 企業經營者의 폭넓은 一般敎養과 높은 識見, 誠實, 패어플레이의 정신 등 人格이 문제가 되었으며 組織보다 人間的 信用이 중시되었다. 組織보다 사람이 중요시되고 專門的 機能이 경시되는 企業風土에서 「科學的 管理」에 대한 관심도 소극

(78) 越智武臣, 「ジェントルマン・イデアールの形成(一)(二) —イギリス近代國民文化の系譜」, 『立命館文學』, 第203, 205號, 1962年 5, 7月 및 楊天溢, 前掲論文 참조. 젠틀맨의 定義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Coleman, *op. cit.*, pp.97-101 참조. 콜먼은 19세기 英國 젠틀맨에 대한 뉴먼(J.H. Newman)의 유명한 定義를 引用하면서 그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諸德目이 産業資本主義 經濟에 이상적으로 適合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Ibid.*, pp.98-9.

(79) Habakkuk, *op. cit.*, p.190-1; F.M.L. Thompson, *English Landed Society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1963, pp.129-31; Kindleberger, *op. cit.*, pp.126-34.

적이었으며 經營學의 발달도 늦어졌다.⁽⁸⁰⁾

技術職 일반을 위한 教育制度도 英國의 경우 나후되어 있었다. 최초의 産業革命을 수행한 英國에서는 技術은 先代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學校教育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지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英國에서는 初等 義務教育制度가 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1880年代에 들어서였다. 科學技術教育도 뒤늦었다. 技術訓練은 정규의 學校가 아니라 企業에서 이루어졌으며, 19세기 중엽까지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런던大學과 그 외는 優劣差가 심한 職工學院이라든가 부정기적인 夜學, 講習 그리고 약간의 開明的인 中等學校라든가 그래픽 스쿨에서 초보적인 理科의 수업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1880年頃부터였다. 19世紀 중엽에는 科學教育面에서의 進歩가 나타났다. 王立化學院(1845年), 國立鑛山專門學校(1851年), 맨체스터의 오웬專門大學(1851年) 등이 창설되고 1850年代에는 理學士의 學位가 창시되었다. 이들 學校는 높은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나 初·中等學校에서의 준비교육이 불충분하여 충분한 學生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技術·職業訓練이 개선되는 것은 그 후 1世代를 지나야만 하였다.⁽⁸¹⁾ 그럼에도 불구하고 英國의 大學 및 技術教育의 규모는 독일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第1次大戰 전야에 英國大學의 학생수는 9,000명에 불과했었는데 대해서 독일의 그것은 58,000명에 달하였다. 그에 더하여 工藝大學(polytechnic)의 학생수는 英國의 4,000명에 대해서 독일에는 16,000명이 있었다. 따라서 英國企業에서는 獨逸企業에서와 같은 科學技術者의 대량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1901년에 英國企業에서는 1,500명의 化學者가 고용되어 있었는데 대해서 獨逸企業에서는 그 수는 4,500명에 달하였다.⁽⁸²⁾ 科學的 知識의 기반 위에서 技術革新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응한 大量의 技術者 養成이 필요했던 시기에 英國에서는 그에 대응한 科學技術教育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2) 獨逸

독일에서도 傳統的 價值體系는 英國에서와 같이 존재하였다. 위로부터의 近代的 改革이 이루어진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身分關係가 기본적으로 온존되어 上流階級으로서의 社會的 엘리트는 土地貴族(Junker)과 官僚였으며 企業經營者의 社會的 地位는 낮게 평가되었다. 上流階級은 商工業에 종사하는 것을 자신의 身分에 어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産業革命期 企業家의 주요한 起源은 기존 가치체계의 제약에서 벗어난 中產層이

(80) 이러한 企業風土는 1960年代 이후 비로소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종래의 기술학교가 技術大學으로 승격되고 많은 大學에서 經營學講座가 新設되었다. 1970년에는 처음으로 런던 및 맨체스터大學에서 비즈니스 스쿨이 설립되었다.

(81)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pp. 343-4.

(82) D.H. Aldcroft, "The Entrepreneur...", pp. 119-120 참조.

었다. 그들도 企業家로서 성공하면 實業界에서 은퇴하여 土地所有者 또는 利子生活者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독일의 上流階級은 자신이 企業家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企業活動의 價値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으며 鑛業部門의 대기업에서는 貴族도 企業家로서 활동하였다.

工業化의 전개과정에서 독일의 企業家活動은 社會的 承認을 받게 되고 企業家의 社會的地位도 높아지게 되었다. 통일적 國民國家의 형성이 늦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후진상태에 있었던 19세기의 독일에서는 정치적으로는 國家의 統一을 실현하고 經濟적으로는 工業化를 추진한다는 것이 民族的 課題였다. 강력한 國民國家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富國強兵을 해야 하였고 그 기초는 工業化에 있었다. 工業化는 국민적 요청이었으며 그러한 속에서 초기의 企業家는 個人的 利潤動機만이 아니라 강한 民族主義的 理念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民族主義가 階級的 差異를 초월해서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고 上流階級과 企業家의 社會的 간격을 좁힐 뿐만 아니라 企業家의 社會的地位를 높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독일기업가의 社會·經濟的地位는 19세기말~20세기 초의 급속한 工業化過程에서 결정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獨逸國民性으로서 근면, 規律尊重, 복종, 높은 신뢰성, 國家主義的 性向 등은 잘 지적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노동이 존중되고 직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天職 또는 召命이라는 강한 직업의식이 있고 직업노동에 충실한 인간이 社會的으로 존경을 받았다.⁽⁸³⁾ 이와 같은 資質과 의식은 企業活動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工業化가 진전되어 企業規模의 확대, 所有와 經營의 분리, 機能의 多角化 및 새로운 經營組織의 形成이 진전되는 속에서 독일에서는 專門職이 중요시되었다. 그러한 專門技能은 產業革命期와는 다른 技術的 條件에서 個人的 또는 個別企業의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傳授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것은 學校教育을 통해서 公的으로 學習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學校教育을 통한 技術教育은 一般工員에서 高級技術者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다. (1) 읽고 쓰기와 算術能力, (2) 職人, 機械工으로서의 作業技術, (3) 技師의 경우 科學的 原理와 그 應用訓練의 結合, (4) 理論과 응용에서의 고도의 科學的 知識 등 이들 모든 면에서 독일은 유럽의 모범이 되었다.⁽⁸⁴⁾ 高等教育을 받은 技術者가 技術部門만이 아니라 專門經營者로서 그리고 企業家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企業家의 資質은 教育을 통해서 개발되고 향상되었으며 그와 함께 그의 社會的地位도 향상되었다.

독일에서의 初等義務教育은 英國보다 1世紀 앞선 1763년에 프러시아에서 시작되었으며 19世紀 초가 되면 독일의 學校制度는 전유럽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初等義務教育의 경우

(83) 吉森 賢, 『西歐企業の發想と行動』, 東京, 1979, pp. 36-41, 47.

(84)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p. 340.

就學率은 1860년에 프러시아에서는 97.5% 그리고 작센에서는 100%에 달하고 있었다. 就學年限도 英國에서 보다 길어지는 경향에 있었고 初等教育은 才能있는 學生의 선발을 통해서 中等學校(Mittelschule, Gymnasium)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은 또 專門學校 및 大學校와 연결되어 있었다.⁽⁸⁵⁾ 광범한 계층에서 能力있는 사람이 上級學校에 진학하였다. 그렇게 해서 19세기의 獨逸國民은 世界 최고의 교육을 받은 國民이라고 말해지게 되었다.

특히 企業家の 높은 資質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科學技術教育이었다. 産業革命期の 독일에서 高等教育을 받은 企業家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鑛山部門에서였다. 그것은 주로 國家가 鑛山 및 鑄造工場官吏를 教育하였고 그들이 國營鑛山이 없어진 후에도 이 부문에 잔류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70年代 이후에는 理工大學 및 技術大學이 설립되어 훈련된 科學技術者를 배출하게 되었다. 특히 1899년부터는 技術大學도 博士學位授與權을 획득함으로써 一般大學校와 동등한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企業의 研究所도 科學의 生産에의 응용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 研究所는 1870年代 및 80年代에 大學校 및 技術大學에서의 自然科學 및 技術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化學 및 電氣産業部門에서 설립되었다. 그 후 研究所는 엘버펠트(Elberfeld)의 바이에르(Bayer)研究所, 크롭(Krupp)會社의 化學研究所, 지멘즈·할스케의 研究所 등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研究所로 발전하여 많은 大學校 및 技術大學의 卒業者를 고용하였다.⁽⁸⁶⁾ 企業活動에서 科學技術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大學教育을 받은 研究部門責任者가 企業家的 機能을 하게 되고 企業의 經營層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시기에 技術大學 출신 企業家の 比重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증가는 집착적인 것으로서 1953년에도 企業의 任員 및 所有者 12,000名の 31%정도가 學位를 갖고 있었으며 그의 3분의 1이 技術大學의 學位所持者였다.⁽⁸⁷⁾

科學의 生産에의 응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속에서 科學技術部門에서의 大學 및 研究所가 制度的으로 일찍부터 발달한 데 대해서 商業=經營技術教育은 뒤늦었다. 1870年代의 不況期에 販賣 및 原價에의 관심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會計販賣技術도 개선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는 大學教育을 받은 專門經營者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껏해야 中等商業學校教育을 받은 實務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20世紀 초에도 商業學校制度는 크게 발전한 技術學校制度와는 比較될 수가 없었다. 특히 中等學校水準에서는 그러하였다. 1898~1920년에 쾰른, 라이프찌히,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만하임, 뮌히에서 商科大學(Handels-hochschulen)이 설립되었고 여기서는 처음에는 經濟學과 一般教科를 가르쳤으나 1906년부터

(85) Landes, *op. cit.*, pp. 371-7 참조.

(86) Kocka, *op. cit.*, pp. 570-1.

(87) *Ibid.*, p. 572.

經營學(Betriebswirtschaftslehre)을 가르쳤으며 같은 시기에 技術大學에서도 商業 및 經營組織關係 教科와 法學에 관한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商學의 學位(Diplom-Kaufmann)는 훨씬 늦어 1913년에야 授與되게 되었다. 商科大學教育을 받은 企業任員은 1914年 이전에는 매우 드물었다. 1954年에도 商業 및 經濟學分野의 學位所持者는 經營者의 17%로서 法學分野의 學位所有者(19%)보다도 적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有資格 技師 및 法律家의 수보다 급속히 증가한 것은 최근 20年 동안의 일이었다. (88)

IV. 結 語

이상에서 우리는 產業革命期와 그에 뒤이은 工業化의 深化期에 전개된 英國과 독일의 企業家活動의 특징을 몇가지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이제 그것을 요약하자.

產業革命期の 英國과 독일에서 社會的 및 地理的 可動性이 증대하는 속에서 企業家は 모든 階層과 地方에서 배출되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英國에서는 先行한 시기에 성장해 온 中產的 生産者層에서 產業企業家의 대부분이 배출되고 있는 데 대해서 독일에서는 초기 產業企業家의 가장 큰 공급원천은 商人階層이었으며 그 다음이 匠人階層과 技術教育을 받은 技術者層이었다. 독일의 경우 英國에서 만큼 中產的 生産者層의 成長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先貨制를 통한 商人資本의 支配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후진적 상태에서 초기의 企業家は 商人階層에서 다수 배출되었다. 후진적 상태에 있던 독일에서는 技術教育은 英國보다 앞서고 있었으며 學校 또는 實際教育을 받은 技術者의 역할도 컸다. 한편 宗派的으로 보면 영국과 독일에서 다 같이 프로테스탄트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

企業家の 動機는 일반적으로 利潤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社會的 上昇도 중요한 동기였지만 그러기 위해서도 利潤追求=富의 축적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였다. 倫理的 價値 또는 市民的 道德에 기초한 利潤의 追求는 宗教的 思想的으로도 정당화되었다. 그와 함께 독일에서는 民族主義的·國民主義的 動機가 부여되었다. 한편 產業革命期 企業家の 典型的인 형태는 「工業指揮官」(Captain of Industry)이었다. 그들은 企業家로서의 필요한 資質을 본래의 才能과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外國旅行·研修 및 學校教育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습득·개발되었다.

產業革命期 企業家の 典型으로서의 「工業指揮官」은 企業形態가 일반적으로 個人企業 또

(88) Kocka, *op. cit.*, p.573-4.

는 파트너십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속에서 필요한 資本을 자신과 친척 또는 친지로부터 동원하여 企業을 설립하고 실현한 利潤을 再投資하는 과정에서 企業을 확장시켰다. 이러한 형태의 資本調達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및 기술적 조건도 존재하였다. 企業의 운영에 필요한 단기 운영자본은 지방의 은행으로부터 조달되었다. 독일에서는 1850년 이후 株式會社組織을 통한 자본조달이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自己金融方式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勞動者의 관리방식으로는 영국과 독일에서 다같이 家父長的·權威主義方式, 金錢的 動機賦與方式 그리고 強制力을 수반한 官僚主義的 命令 및 指示方式 등이 도입되었다. 「工業指揮官」은 이들 方式을 통해서 현장에서 勞動者를 직접 관리하였다. 그와 함께 독일에서는 株式會社組織과 垂直的 統合을 통해서 企業規模가 확대되고 機能이 多角化됨에 따라 새로운 管理體系가 도입되게 되고 그에 대응한 管理方式으로 家族的 協同方式과 官僚的 職階組織方法이 도입되었다. 특히 官僚的 職階組織方式을 통해서 獨逸企業은 管理組織面에서 英國企業에 앞서고 있었다.

産業革命期에 뒤이은 工業化의 深化期에 있어서 工業은 새로운 技術革新을 기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工業成長의 實績은 英國과 독일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즉 영국 工業이 그 자체로서는 成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減速」 또는 「정체」한 데 대해서 독일 공업은 특히 鐵鋼工業과 新工業을 중심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 그 속에서 大企業이 成長하고 經營組織도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도 英國과 독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英國에서는 工業企業組織으로는 여전히 個人企業과 파트너십組織이 일반적이었으며 株式會社組織은 工業部門에서는 資本集約的인 부문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났다. 英國에서는 株式會社組織의 企業도 個人 또는 家族企業의 性格이 농후하였다. 또한 企業合併을 통해서 企業規模의 확대도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대부분이 水平的 합병으로 반드시 機能의 多角化라든가 統合이 수반된 것은 아니었으며 그 동기도 효율성의 증대보다도 독점을 유지한다는 방어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英國企業의 경우 所有와 經營의 분리는 진전되지 못하고 專門經營者層의 출현을 필요로 하는 內部組織上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株式會社가 보급되고 카르텔 및 垂直的 企業合併이 진전되었으며 株式會社組織의 大銀行은 그 과정을 뒷받침하고 産業企業의 운영에 간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企業規模가 확대되어 規模의 經濟를 이룩할 수 있게 되고 機能의 統合과 多角化가 진전되었으며 그에 따라 同族企業의 비중은 매우 높으면서도 株式이 분산되어 있는 大企業에서는 所有와 經營의 분리가 진전되고 專門經營者層이 企業經營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科學的 管理」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家族企業的 性格이 일반적이었던 이 시기의 英國에서 企業家活動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의 英國企業家活動의 평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相反되는 論議가 거듭되어 왔다. 그러나 英國의 企業家活動이 그 자체로서는 실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이전과 같은 활력을 상실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독일과의 대비에서 볼 때 필요한 合理性·效率性을 충분히 실현할 만큼 적극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英國社會를 支配하는 土地貴族=젠틀맨의 價値體系는 유능한 企業家의 공급을 제약하였으며 젠틀맨의 敎養敎育이 중요시되는 속에서 科學技術敎育이 낙후되어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企業家的 資質의 개발도 뒤늦었다. 이에 대해서 工業化를 통한 先進國 英國에의 캐취·업을 民族的 課題로 한 後進國 獨逸社會의 價値體系는 유능한 企業家의 공급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며 專門職이 중요시되는 속에서 이른 시기부터의 科學技術敎育이 발달하고 企業家的 資質은 적극적으로 개발되었다.

우리가 고찰한 時期에 전개된 英國과 독일의 工業化過程에서 나타난 특징에는 이와 같은 兩國의 企業家活動의 특징이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